

朝鮮總督府 歐美 出張 制度의 特徵과 官僚의 派遣 推移

최현우*

1. 서언
2. 구미 출장 제도의 특징
3. 분야별 파견 추이
4. 결어

1. 서언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조선의 통치를 총괄하는 기구로 그 정책은 조선인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조선총독부의 거시적인 통치방침과 정책은 일본 제국주의의 다른 식민지처럼 기본적으로 일본 정세의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조선의 경우 일본이 병탄한 류큐, 대만 등과 비교했을 때 지정학적 위치는 물론이거니와 영토·인구의 규모, 역사적 전통과 저항의 강도에 큰 차이를 보였다. 다른 식민지와 구별되는 조선통치의 중요성과 특수성은 조선총독부 통치구조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조선통치에는 근대 제국주의 식민지배체제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국 관료가 동원되었다.¹⁾ 이들은 일본 정부의 관료에 비해서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조선통치에 관여하였다.²⁾

*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박사과정.

1) 위르겐 오스터함멜(박은영·이유재 옮김), 2006 『식민주의』, 역사비평사, 104면.

2) 민족문제연구소, 2017 『일제식민통치기구사건』, 29-31면; 이철우, 2006 『일제 지배의 법적 구조』 『일제 식민지 시기의 통치체제 형성』(김동노 편), 해안, 127-139면.

하지만 식민지배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일본에는 식민지 관료를 양성하는 체제가 존재하지 않았다.³⁾ 조선총독부는 식민지배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실증적 경험이 축적된 구미 제국주의 열강과 그들의 식민지에 관료를 파견하여 식민지 조선의 관료를 육성하는 한편 효과적인 통치에 필요한 준거 마련에 힘썼다. 이는 1910년부터 1939년까지 320여 명에 달하는 조선총독부 관료가 구미와 그들의 식민지에 출장의 형식으로 파견되어 시찰 조사 활동을 전개한 사실에 잘 드러난다. 근대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구미에 사절단과 관료를 파견한 일본 정부의 태도는 식민지배 체제 수립이라는 목적만 달라졌을 뿐 조선총독부에 그대로 이어졌다.⁴⁾

조선총독부 관료의 구미 파견과 관련하여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재외연구원제도를 분석한 연구가 존재한다.⁵⁾ 이를 통해 조선총독부가 재외연구원제도를 통해 경성제국대학을 중심으로 한 관립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을 육성한 동시에 구미의 교육·철도정책을 중점적으로 연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연구는 조선총독부가 구미에 파견한 관료를 집중적으로 다룬 최초의 연구이지만 출장 형식으로 파견된 관료를 간과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구미 출장은 대부분 관립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으로 구성된 재외연구원에 비해 파견 관료의 스펙트럼이 넓으며 그 인원도 재외연구원의 2.6배에 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구미 출장 제도는 조선총독부의 식민지배체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3) 이형식, 2012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인사정책: 조선총독부試補를 중심으로』 『한일군사문화연구』 13, 203-205면.

4) 막부와 雄藩이 서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구미의 학술은 이들이 생존하기 위해 참고해야 할 준거로 자리매김하였다. 막부가 타도된 이후 '메이지 정권'이 새로이 들어섰으나 국가 운영의 방향은 물론 각 부분의 운영 계획도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의 '구미 지향성'을 강화시켰다. 메이지 정권은 '이와쿠라 사절단'으로 대표되는 다수의 시찰단과 개별 관료를 구미에 파견하여 국가 운영의 거의 모든 부분에 참고 자료를 마련하는 동시에 많은 서양인을 고문으로 초빙하였다. 방광석, 2015 『근대전환기 일본인의 서양체험』 『日本研究』 24; 宮永孝, 2006 『幕末遣歐使節団』, 講談社學術文庫; 石井孝, 2010 『日本開國史』, 吉川弘文館; John Denney, 2011 "Respect and Consideration: Britain in Japan 1853-1868 and Beyond", Radiance Press 참조.

5) 최현우, 2013 『日帝強占期 朝鮮總督府의 在外研究員制度 運營과 推移』 『歷史教育』 128.

현재까지 조선총독부가 정리한 구미 출장 관료의 명단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보는 물론 일본국립공문서관 및 외무성외교사료관 등에 소장된 출장관련 서류와 직원록, 인명록, 신문, 잡지 등을 활용하여 그들의 명단과 이력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구미 출장의 추이를 파악하는 한편 출장복명서, 기행기 등 구미 출장 관료가 직접 남긴 기록을 찾아 출장 목적과 내용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논문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2장에서는 구미 출장 제도의 대체적인 운영 양상과 추이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해외 출장 제도에 관한 규정을 분석하고 조선총독부 구미 출장 제도의 특징과 전체적인 파견 추이를 살펴보겠다. 3장에서는 구미 출장 관료의 분야별 파견 추이와 파견 목적을 밝히고자 한다. 본 논문은 조선총독부의 구미 출장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로서 구미 출장의 규모와 추이 파악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작업이 조선총독부의 지배체제와 관료 육성정책에 대한 연구의 폭을 넓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 구미 출장 제도의 특징

1910년 한일 강제병합으로 등장한 조선총독부는 바로 그해부터 1939년까지 구미 지역에 관료를 출장 파견하였다. 연초·인삼 등 조선의 생산물에 대한 수출장려를 목적으로 파견된 출장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출장의 형식을 빌려 관료의 식견을 넓히고 정책 입안의 자료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 출장의 궁극적인 목적이 식민지배 체제의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에 있었기에 조선총독부는 구미는 물론 그들의 식민지에도 관료를 파견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은 ‘구미’를 유럽과 미국은 물론 그들의 식민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장 관료의 대다수는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을 시찰 조사하였으며, 출장 목적에 따라 그들의 식민지인 인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등이 포함되었다. 유럽 열강과 미국의 경우에는 주로 행정, 사법, 교

육, 사회제도의 특징 및 신경향에 대한 시찰 조사와 학문 연구를 목적으로 관료가 파견되었다. 식민지의 경우에는 제도적 차원의 시찰 조사와 더불어 원주민의 민족운동 상황과 진압 방법, 주요 산업의 특징과 자원의 이출 현황 등도 시찰 조사의 주요 주제였다.

구미 출장 관료는 조선총독부에 일시적으로 고용된 자 혹은 출장 관료를 보조하는 수행원과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주임관 이상의 직책에 있는 고등관이었다.⁶⁾ 조선총독부 구미 출장 관료 321명 중 3명을 제외한 318명은 현직 고등관이었으며 비율로 따지면 약 99%에 달한다. 구미 출장은 조선 내에서 '제2의 등용문'이라 여겨질 정도로 고급 관료 중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⁷⁾

조선총독부 관료의 구미 출장에는 일본의 해외 출장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이에 따르면 친임관인 조선총독, 정무총감의 경우 일본 내각에서 해외 출장을 명하였다. 조선총독부 칙임관의 경우 일본 내각 총리대신의 인가를 거쳐 조선총독이 명하였으며, 주임관 이하의 해외 출장은 조선총독의 직권으로 가능하였다.⁸⁾

관료는 '관청사무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때'에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文官分限令」 11조 4의 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받고 해외 출장을 떠났다. 출장 기간은 최장 2년 이내로 규정되었으며(「文官分限令」 11조 2), 출장 관료는 그 기간동안 봉급의 1/3을 지급받았다(「文官分限令」 13조). 해외 출장 관료는 봉급 이외에

6) 3·1 운동 직후인 1923년에 아일랜드 식민지 제도 시찰 조사를 목적으로 조선총독부에 고용되어 출장 파견된 木田川奎彦, 철도국 참사를 보조하기 위해 함께 파견된 서기 岸利信, 武内三省 등이 이에 해당된다.

7) 『朝鮮新聞』 1935년 1월 12일.

8) 一. 친임관의 해외 출장은 주무대신, 조선총독, 대만총독 및 관동장관의 주청에 의하여 내각에서 명함. 一. 칙임관의 해외 출장은 종전에 특별히 위임된 경우를 제외하고,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거쳐 주무대신, 조선총독, 대만총독 및 관동장관이 명함. 一. 주임관 이하의 해외 출장은 주무대신, 조선총독, 대만총독 및 관동장관이 명함. 一. 관리대우자의 해외 출장은 각기 本官의 예에 의함. 一. 囑託, 雇員 이하의 해외 출장은 주임관 이하의 예에 의함. 日本國立公文書館 所藏, 『官吏ノ海外出張ニ關スル處理方・内閣通牒』 大正8年6月16日(請求番号: 樞00137100).

추가로 여비를 지급받았다. <표 1>에 보이듯 여비는 일당을 비롯하여 교통 운임, 숙박료, 식사비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官階 및 출장 지역에 따라 그 액수는 차등 적이었다.⁹⁾

<표 1> 해외 출장 관료의 수당

(단위 : 円)

區分 \ 官階		親任官	勅任官	奏任官		判任官
				5等 以上	6等 以下	
日當		25	15	10	8	6
宿泊料	甲 地方	70	50	32	30	24
	乙 地方	60	42	24	22	18
	丙 地方	30	22	17	16	13
食卓料		8	7	5	5	4
支度料	甲 地方	1400 以內	900 以內	700 以內	700 以內	500 以內
	乙 地方					
	丙 地方	1000 以內	700 以內	550 以內	550 以內	300 以內
移轉料	甲額	600 以內	450 以內	300 以內	300 以內	200 以內
	乙額	400 以內	300 以內	200 以內	200 以內	150 以內
死亡手當	甲 地方	7500 以內	4500 以內	2500 以內	2000 以內	1500 以內
	乙 地方					
	丙 地方	5000 以內	3000 以內	1700 以內	1300 以內	1000 以內

※ 출전 : 『外國旅費規則』別表(勅令 第401號), 『日本官報』 1921년 9월 1일.

※ 비교 :

- 甲 地方-남북아메리카 / 乙 地方-유럽·아프리카大洋州, 중국·시베리아 이외의 아시아 / 丙 地方-중국과 시베리아 이하 동일함.
- 支度料는 출장 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의미함.
- 이전료의 甲額은 甲·乙 지방과 本邦 또는 丙 지방과 甲·乙 지방간 및 甲·乙 각 지방 내의 이전에 대해 지급함. 이전료의 乙額은 本邦 丙 지방 사이 및 丙 지방 내의 이전에 대해 지급함.

1920년 공립보통학교 일본인 남성 훈도의 한 달 평균 봉급이 112엔, 여성 훈도가 70엔이었다는 사실, 1926년을 기준으로 한 경성제국대학 교수의 가장 높은

9) 일본은 1887년 5월 7일 閣令 제12호 『外國旅費規則』을 통해 해외 출장 여비를 법제화하였다. 이 규칙은 1921년 9월 1일 칙령 제401호를 통해 제정에 가까울 정도로 대폭 개정되었다. 이후 소폭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內閣官報局, 1887 『法令全書』 上卷, 343면; 『日本官報』 1921년 9월 1일; 1922년 4월 8일; 1934년 12월 26일; 1937년 12월 1일; 1941년 3월 31일; 1943년 8월 28일.

급봉이 연 4,055엔이었던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구미 출장 관료는 높은 수준의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¹⁰⁾

해외 출장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동시에 관료의 장기간 부재에 따른 업무의 공백도 발생하였다. 출장 관료의 편의 제공을 위해 해당 국가에 소재한 일본 대사관(영사관) 및 각국 정부와의 긴밀한 행정 협조도 요구되었다.¹¹⁾ 이처럼 해외 출장은 여러 행·재정적인 부담을 수반하기에 일본 내각은 해외 출장을 신청하려는 기관과 관료에게 반드시 그와 유사한 목적의 국외 출장 사례가 있었는지 검토하고 보고서를 열람하도록 했다. 또한 해외 출장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요구하여 그 타당성을 심사하였으며, 귀국 이후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이처럼 해외 출장에는 절차상 제한 규정이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부는 1910년부터 1939년까지 321명에 달하는 관료를 구미에 파견하였다. 연도별 구미 출장 추이는 <표 2>와 같다.

<표 2> 조선총독부 관료의 연도별 구미 출장 추이

연도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합계
인원	1	1	12	10	4	2	4	4	9	11	58
연도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합계
인원	14	14	24	20	19	18	32	28	23	25	217
연도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합계
인원	9	7	6	7	7	3	4	2	0	1	46

※ 출전 : <부록> 조선총독부 구미 출장 관료 명단.

9명이 중복으로 파견되었기에 실제 구미 출장을 경험한 조선총독부 관료는 모두 312명이다.¹²⁾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구미 출장은 1912년부터 큰 폭의

10) 훈도와 교수의 봉급은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各年版 참고.

11)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보관 중인 『帝國官吏出張及巡廻雜件』에 이러한 내용이 잘 나타나 있다.

12) 중복으로 파견된 인물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해당연도). 川崎繁太郎(1917, 1927), 林繁藏(1918, 1926), 松井房治郎(1918, 1927), 伊森賢三(1919, 1929), 植木秀幹(1920, 1933), 油井岱治(1920, 1934), 小林晴治郎(1922, 1927), 志賀潔(1924, 1927), 福士德平(1926, 1930).

증가를 보였다. 하지만 1914년에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구미 출장은 위축되었다. 파견 인원은 급감하였으며, 조기 귀국 조치가 내려지기도 하였다.¹³⁾

하지만 1910년대 말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는 시기에 다시 증가하여 1920년대에 가장 많은 인원이 파견되었다. 구미 출장 중 217건이 1920년대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전체 출장의 약 68%에 달하는 규모이다. 조선총독부는 1922년에 들어 출장 기간을 조금씩 줄이더라도 보다 많은 관료에게 구미 시찰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¹⁴⁾ 그리하여 1922년에 처음으로 구미 출장 인원은 20명을 넘겼으며, 1922년부터 1929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189건의 구미 출장이 이루어졌다. 이는 전체 출장의 약 60%에 해당한다.

1920년부터 시작된 戰後恐慌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 내각은 1922년 3월부터 긴축 재정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가 요구한 공채와 보조금도 대폭 삭감되었다. 조선총독부 내에도 1922년 7월에 行財政整理委員會가 설치되어 일본 내각의 긴축 재정 방침에 부응하였다.¹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2년부터 조선총독부의 구미 출장 파견은 급증하였다.

3·1 운동 직후 조선 총독으로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齋藤實]는 취임 직후부터 필리핀의 주요 인사를 조선으로 대거 초빙하여 자문하는 한편, 구미는 물론 동남아시아 식민지 등지에 관료를 파견함으로써 식민통치 안정화의 시사점 마련

13) 日本國立公文書館 所藏, 『任免裁可書』 大正六年, 任免卷十九, 任B00815100, マイクロフィルムリール番号: 023000.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 구미 출장을 명받은 관료 중 일부는 질병을 이유로 의사 진단서까지 첨부하여 구미 출장을 피하기도 했다. 日本國立公文書館 所藏, 『任免裁可書』 大正六年·任免卷一, 任B00797100 참조.

14) 『毎日申報』 1922년 5월 19일.

15) 1922년 3월 제45회 제국의회에서 수립한 1923년의 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해 약 1억8천만 엔이 삭감되었다. 내각의 재정긴축 방침은 행정정리실행으로 구체화되었다. 내각은 원칙적으로 각성 소관 경비 중 봉급 및 사무비의 2할 삭감 방침을 통첩하였다. 1923년 6월 행정정리준비위원회는 조선총독부 鐵道部와 官房庶務部의 폐지, 土木部를 內務局으로 통합, 衛生部 설치의 백지화를 골자로 하는 행정정리요강을 결정하였다. 조선총독부 守屋榮夫 비서관장이 진두에 섰던 행재정정리위원회에서는 시정의 결함을 지적하고 부서를 통폐합, 인원 정리, 물품 및 소비품의 절감, 배급의 개정, 관영사업의 폐지 등 1500만 엔 규모의 정리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각 부서의 반발 등으로 인해 실제 시행된 내용은 정리안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이형식, 2010 『중간 내각 시대(1922.6-1924.7)의 조선총독부』 『東洋史學研究』 113, 280-282면.

에 힘썼다.¹⁶⁾ 또한 그는 3·1 운동을 계기로 심화된 국제 사회의 반일 여론을 무마하는 선전 활동을 전담할 기구로 1920년 조선정보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워싱턴 회의(1921~1922) 등 주요 국제회의에 조선총독부 관료를 적극 파견하였다.¹⁷⁾ 이러한 정책은 1920년대에 활성화된 조선총독부 관립 학교·병원·연구소의 인력 재교육 및 연구기관 확충과 맞물려 구미 출장의 급증을 낳았다.

1926년 정점을 찍은 조선총독부의 구미 출장 파견 인원은 1927년 4월에 일어난 이른바 쇼와 금융공황의 영향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¹⁸⁾ 일본 내각은 금융공황으로 인한 재정 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먼저 관료의 출장과 그와 관련된 비용부터 줄였다. 국장, 지사 등에게 부여된 1등 무임승차권 등은 물론 출장 자체를 제한하였다.¹⁹⁾

특히 소위 위로 출장이라는 이름으로 관료의 노고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일부 관료를 조선에 여행 보내는 관례를 엄금하였다.²⁰⁾ 후술하겠지만 조선총독부의 구미 출장도 일반행정 관료의 경우에는 특정한 목적없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1928년부터 조선총독부 구미 출장은 그 수가 감소되었으며, 1929년 세계 경제 대공황의 여파로 인해 1930년에 들어 크게 위축되었다.²¹⁾ 조선총독부 구미 출장은 일본의 대외 침략 확대와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인해 1940년부터는 찾아볼 수 없다.

조선총독부 관료의 구미 출장은 특정한 목적의 유무와 성격에 따라 크게 ①

16) 弓削幸太郎, 1923 『朝鮮の教育』, 自由討究社; 『毎日申報』 1919년 10월 3일; 『文教の朝鮮』 1926년 2월號 彙報 海外學事視察 참조.

17) 半井清, 1936 『意氣と熱との三年半』, 朝鮮新聞社 編, 『朝鮮統治の回顧と批判』, 194-195면; 千葉了, 1925 『朝鮮獨立運動秘話』, 帝國地方行政學會, 175-184면; 나가타 아키후미 (박환무 옮김), 2008 『일본의 조선통치와 국제관계』, 일조각; 조성운, 2007 『1920년대 초반 朝鮮情報委員會의 宣傳活動』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1. 참조.

18) 쇼와 금융공황에 대해서는 차명수, 2001 『1927년 쇼와 금융공황의 원인』 『經濟史學』 30-1을 참고할 것.

19) 『毎日申報』 1929년 8월 24일.

20) 『朝鮮新聞』 1929년 8월 29일.

21) 일본 관료뿐 아니라 조선의 관료도 연말에 예산 잔액을 이용하여 국내 관광지 등으로 '위로 출장'을 떠났다. 하지만 1930년대에 들어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관행을 악폐로 규정하고 엄금하는 통첩을 내렸다. 『毎日申報』 1933년 3월 19일.

특정한 출장 목적없이 일반행정 분야를 전반적으로 시찰하기 위해 파견된 경우와 ②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시찰 조사와 관료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파견된 경우로 구분된다. 이공 계열, 의학을 전공하고 관련 분야에 재직한 조선총독부의 기술 관료는 거의 대부분 귀임 이후에도 업무를 맡았으며 구미 출장 파견도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기술 관료의 파견은 ②에 해당된다.

행정 관료의 경우에도 사법 및 교육 분야의 관료는 예외를 찾기 힘들만큼 구미 파견 전후에 몸담은 분야가 동일하다. 전매국, 체신국, 철도국에 종사한 관료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해당 관청의 경우 행정 관료라 하더라도 구미 시찰 이후에 같은 곳에서 계속 근무하며 업무의 전문성을 키워나갔다. 따라서 사법 및 교육 관료, 전매국·철도국·체신국의 행정 관료도 ②의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구미 출장 관료를 ①(일반행정)과 ②로 구분하고, ②를 다시 사법, 교육, 의료, 농림수산, 전매, 공업, 철도, 체신으로 구분하여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²²⁾

<표 3> 조선총독부 관료의 분야별 구미 출장 인원

분야 시기	일반행정	사법	교육	의료	농림수산	전매	공업	철도	체신	합계
1910-1919	16	4	2	11	2	3	8	10	2	58
1920-1929	48	8	73	30	15	9	18	5	11	217
1930-1939	16	4	7	3	3	5	2	0	6	46
합계	80	16	82	44	20	17	28	15	19	321

※ 출전 : <부록> 조선총독부 구미 출장 관료 명단.

<표 3>에 나타난 것처럼 교육 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전체 출장 관료의 1/4에 해당하는 인원으로서 출장자의 약 90%가 1920년대에 파견되었다. 일반행정도 교육 분야와 비슷한 규모로 전체 출장 관료의 1/4에 해당한다. 교육

22) 전매국 소속으로 구미에 출장 파견되었지만 귀임 이후 여러 행정 관서에서 근무한 경우는 일반행정에 포함시켰다.

관료와 마찬가지로 1920년대에 출장이 집중되어 있으나 그 비율은 60%로 교육에 비해 낮은 편이다. 다음으로 전체의 약 14%에 해당하는 의료 분야의 파견이 두드러진다. 철도는 다른 분야와 달리 1920년대에 들어 구미 출장 인원이 감소하며, 1930년대에 들어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1920년대와 1930년대에도 많은 철도 관료가 재외연구원제도를 통해 구미에 파견되어 철도 경영과 철도 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였다. 즉 철도 분야의 경우 구미 파견의 양상이 출장의 형식에서 재외연구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재외연구원은 출장으로 파견된 관료에 비해 훨씬 많은 재정적 지원과 장기간의 연구 기간을 보장받았는데, 교원을 제외하고 절대 다수가 철도 관료였다.²³⁾

출장 기간이 파악된 257건의 평균 출장 기간은 약 10개월이다. <표 4>에 정리한 바와 같이 교육, 의료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1920년대에 출장 기간이 유지되거나 증가하였다. 1930년대는 일본의 전시체제가 확대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출장 기간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표 4〉 조선총독부 관료의 분야별 해외 출장 기간

분야 시기	일반행정	사법	교육	의료	농림수산	전매	공업	철도	체신
1910-1919	8	7	9	17	9	10	12	9	10
1920-1929	11	10	4	13	12	10	14	14	11
1930-1939	6	10	6	11	8	7	7		8
평균	8	9	6	14	10	9	11	11	10

※ 출전 : <부록> 조선총독부 구미 출장 관료 명단.

※ 비교 :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표 4〉와 같이 가장 출장 기간이 긴 분야는 의료이며, 출장 기간은 평균 14개월에 달한다. 대체적으로 기술 관료의 출장 기간이 행정 관료보다 긴 편이기에 농림수산, 공업 등의 출장 기간도 평균보다 길다. 교육의 경우는 평균 출장 기간이 가장 짧으며, 1920년대는 4개월에 불과하다. 이는 1926년부터 1929년까지 네

23) 최현우, 앞의 논문 참조.

차례에 걸쳐 초·중등교육기관의 교장을 중심으로 한 교원 50명을 2개월간 단체로 홍콩, 필리핀 등지에 교육 시찰을 보낸 사실이 통계치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을 제외한 교육 분야의 평균 출장 기간은 10개월에 달한다. 즉 홍콩, 필리핀과 같은 동남아시아의 구미 식민지 이외에 구미에 직접 파견된 교육 관료의 출장 기간은 평균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다음으로 구미 출장 관료의 인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출장 관료 중에서 출신 학교가 확인된 인물은 253명이다. 이들 중 67% 해당하는 170명이 도쿄제국대학 출신이며, 8%에 해당하는 22명이 교토제국대학 출신이다. 고등문관시험 합격자의 상당수가 도쿄·교토제국대학 출신이었기에 주임관 이상에 해당하는 관료를 구미에 출장 파견하는 구조하에서 이들 대학 출신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출장 파견 당시 연령이 확인된 관료의 평균연령은 약 41세로, 1910년대·20년대·30년대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조선총독부 구미 출장 관료의 민족별 구성을 살펴보았을 때 조선인은 金基善(1923), 南宮營(1925), 崔哲岳(1926), 李翊華(1929), 金時權(1934) 5명에 불과하다(괄호 안은 파견시점). 구미 출장 인원 321명의 1.6%에 불과하다. 이들 중 조선총독부 고위 관료인 김기선, 남궁영, 김시권은 미국과 유럽을, 보통학교 교장인 최철악, 이익화는 영국·미국의 식민지인 홍콩, 필리핀 등을 시찰하였다. 따라서 본질적인 구미 출장은 단 3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조선인 관료 중 처음으로 구미 출장 대상으로 선정된 김기선은 조선인 최초로 일본의 행정 관료로 임명된 인물로 1914년 니혼[日本]대학 정치과를 졸업하고 그해 가을부터 도쿄부[東京府] 미나미타마군[南多摩郡]에서 견습으로 근무하다 1915년 3월 서기로 정식 임명되었다.²⁴⁾ 그는 1916년 9월 조선총독부 내무부 제1과 속으로 발령받아 조선으로 건너온 이후 함경북도 온성군수, 함경북도 서무과장으로 근무하였다.

김기선은 1923년 하순에 조선총독부 전매국 부사무관으로 임명되어 구미 출장

24) 内地의 朝鮮人 文官 김기선군으로써 시초, 『毎日申報』 1915년 4월 14일; 日本大學校友會編, 1932 『日本大學校友會會員名簿』(昭和7年4月 現在), 226면. 경기도 개성군 藍橋 金容聖의 장남으로 태어난 김기선은 경성 보성중학교 재학 중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도쿄부립제1중학교 및 니혼대학교 정치과를 졸업하였다.

을 떠났다. 출장 기간 중 조선총독부 서무부장 모리야 에이후[守屋榮夫]와 합류하여 구미에 재류 중인 조선인의 동향을 파악하고 각지의 민족운동을 조사 연구한 것으로 보인다.²⁵⁾ 1921년 12월 아일랜드 독립은 국내 민족운동을 자극하여 참정권, 자치권 요구 목소리가 거세게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총독부는 조선인의 입장에서 이에 관련된 구미의 민족운동을 시찰 조사하고 의견을 제시할 만한 인물이 필요했던 것이라 생각된다.

1920년대에 들어 조선인 관료의 구미 출장이 시작된 것은 사이토 총독이 표면적으로 조선인 관료를 우대할 조치와도 관련이 있다. 3·1 운동 당시 많은 조선인 하급 관리가 직접 투쟁에 참가하거나 사직·태업을 벌였는데, 그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조선인 관리의 임용과 처우에서의 민족 차별이었다.²⁶⁾ 사이토 총독은 동요하던 조선인 관리들에게 ‘조선인의 임용 및 대우 등에 대해서도 재고하여 각기 하고자 하는 바를 할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을 강조하였다.²⁷⁾ 김기선으로 시작된 조선인 관료의 구미 출장은 이러한 선전의 일환으로 파악된다. 다시 말해 조선총독부에 충성을 다하면 ‘성장’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려 하기 위해 구미 출장에 조선인 관료를 참여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남궁영과 김시권의 사례는 조선인 관료에 대한 구미 출장의 이러한 성격을 잘 보여준다. 남궁영은 1914년 도쿄제국대학 정치과를 졸업하여 조선인 최초로 도쿄제국대학에서 법학사를 취득한 인물이다. 그는 졸업과 동시에 조선총독부 관료가 되어 1917년 7월 전라남도 진도군수로 임명되었다. 이후 학무국 사무관으로 근무하며 조선미술전람회를 개최하고 조선구관제도조사 등에서 성과를 거두

25) 독일의 근황 조선인 유학생 80명, 『毎日申報』 1923년 7월 5일; 金基善씨 귀착기, 『毎日申報』 1923년 11월 23일; 歐米所感, 『朝鮮』 106, 1924년 2월.

26) 강동진, 1980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180면.

27) 장신, 2003 『1920·30년대 조선총독부의 인사정책 연구: 보통문관시험 합격자의 임용과 승진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20; 齋藤實, 『施政方針ニ關スル諭告』 1919년 9월 10일, 朝鮮行政編輯總局 編, 1937 『朝鮮統治秘話』, 帝國地方行政學會 참조. 하지만 조선총독부 민족별·계급별 분포만 보더라도 이는 선전적인 제스처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18년 칙임관의 47%, 주임관의 31%를 차지한 조선인의 비율은 1926년에 들어 각각 40%, 24%로 더 떨어졌다. 조선인의 비율은 해가 갈수록 감소되어 1943년에는 각각 4.6%, 13.9%에 불과하였다.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2009 『친일인명사전』 1, 30-31면.

어 총독부의 인정을 받았다. 1926년 식산국 농무과로 자리를 옮겨 구미 출장을 떠났으며, 귀국 이후 1931년 9월에는 충청북도 도지사에 임명되었다.²⁸⁾

하급 말단 행정직에서 시작하여 도지사까지 오른 인물로 유명한 김시권은 1908년 평양일어학교를 졸업한 직후 해주 사립 벽성의숙에서 잠시 교편을 잡았지만 곧 관계로 진출하였다. 그는 1919년 온성군수로 재직할 당시 3·1 운동을 진압하여 일제의 인정을 받았으며, 1922년 함경북도 도이사관 상공과장으로 승진하였다. 이어 사회과장, 지방과장, 산업과장을 두루 거친 후 조선인으로서는 최초로 함경북도와 함경남도의 지방과장을 지냈다. 이들 지역은 국경에 인접하고 항일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된 지역이라 관리들이 기피하는 곳이었다. 김시권은 이러한 지역에서 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한 공을 인정받아 1928년 함경남도 도사무관으로 승진하였으며, 1932년에 경상북도 참여관 겸 도사무관으로 산업부장에 올랐다.²⁹⁾ 그는 이러한 ‘공적’을 바탕으로 1934년에 구미 출장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김기선, 남궁영과 달리 김시권은 조선에서 하급 행정 관료로 시작하여 고등관으로 오른 인물이다. 조선총독부는 그에게 구미 출장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조선인 관료도 능력만 인정받으면 고등관으로의 승진과 구미 시찰의 ‘영예’를 안을 수 있다는 상징적 인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남궁영과 김시권 또한 귀임 이후에 도지사에 올라 일본의 전시동원체제를 옹호하며 적극적인 친일 행각을 보였다.

3. 분야별 파견 추이

행정 분야 관료의 구미 출장 사례를 검토해보면 1910년대에서 1920년대 초반까지 戰時 행정, 관세 정책, 식민지 민족운동 등 특정 주제가 발견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정한 출장 목적(주제)을 찾기 어렵다. 즉 일반행정 분야의 고급 행정 관료에 대한 구미 출장 제도는 대체로 특정한 목적 아래 이루어졌다기

28)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앞의 책, 729-730면.

29) 위의 책, 446-449면.

보다 그들의 식견을 넓히는 차원에서 운영된 것이다.³⁰⁾ 고급 행정 관료의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구미 출장은 이미 일본에서 만연하였다.

메이지 정부가 구미의 정책과 사례를 국정 운영의 절대적인 근거로 삼고 관료를 대거 구미에 파견한 이후 구미에서의 경험은 관료의 권위를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원천으로 작용하였다.³¹⁾ 그리하여 관료 특히 일반행정 관료의 구미 출장은 계속 이어졌으며 식민지 조선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27일 각의에서 명년도 예산에는 회의한대로 各省에서 긴급 부득이한 신규 사업의 절대로 요구치안코 정리절약을 가급적 결행하기로 의견이 일치하고 多年 通弊가 되어있는 매년 필요업시 구미에 출장시키는 것 及 소정경비를 사용하지 못할시의 위로 출장 등을 시키었는데 금후는 절대로 이를 廢하되 이에 伴하여 각성에서 조사에 착수하기로 되었다.³²⁾

인용문에 보이듯 1929년 일본 각의는 오랜 기간 동안 通弊인 구미 출장을 철저히 통제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1930년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조선총독부 일반행정 관료의 구미 출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1930년대에 일반행정 관료 16명이 외유성 구미 출장을 떠났는데 이는 1930년대 구미 출장의 약 35%에 달하는 규모이다.

검사, 판사로 구성된 사법 분야 구미 출장의 경우 그 인원이 16명으로 전체 출장 인원(321명)의 약 5%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의 대다수는 귀임 이후에

30) 加藤道也, 2009 『朝鮮總督府官僚のアイランド認識: 時永浦三を手掛かりとして』 『大阪産業大學經濟論集』 11-1: 『世界一周를 맞치고 歸城한 馬野部長, 物質的 完備한 英米警察機關』 『毎日申報』 1924년 12월 16일; 『歐洲各國は宣傳が甘い, 地方行政上にも井上京畿道内務部長談』 『朝鮮新聞』 1927년 2월 8일.

31) 방광석, 앞의 논문: 방광석, 2006 『明治 官僚의 유럽 '지식순례'』 『일본역사연구』 23: 스기야마 신야[杉山伸也], 2011 『메이지정부의 경제정책: 구상과 현실』 『한국과 일본의 서양문명 수용』(동북아역사재단 편), 경인문화사, 265-290면; 清水伸, 1971 『明治憲法制定史(上): 獨逸における伊藤博文の憲法調査』, 原書房; 坂本一登, 2002 『伊藤博文と行政國家の發見』 『明治天皇と政治家群像』(沼田哲 編), 吉川弘文館; 鳥海靖, 2005 『伊藤博文の立憲政治調査』 『日本立憲政治の形成と變質』(鳥海靖·三谷博·西川誠·矢野信幸 編), 吉川弘文館 참조.

32) 不要歐米出張, 『東亞日報』 1929년 8월 29일.

사법계의 요직을 고루 거치며 구미 열강 식민지의 사법체계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선총독부의 식민지배체제의 정당화시키고, 사법체제 개편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식민지배 시스템을 구축에 나섰다.

구미 출장 사법 관료의 복명서와 시찰기를 분석한 결과 그들의 시찰 조사 주제는 크게 ① 구미 식민지 사법제도,³³⁾ ② 구미 사법제도의 신경향,³⁴⁾ ③ 구미의 사회주의 통제정책³⁵⁾으로 구분된다. ①은 1910년대, ②는 1920년대 초반~1920년대 후반, ③은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중반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통해 조선총독부가 시기별로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구한 사법적 수단을 파악할 수 있다. 사법 관료의 시찰 조사 결과는 무단통치의 정당화뿐만 아니라 소년교정제도, 사회주의 통제정책의 마련과 시행의 자료로 활용되

33) 渡邊暢, 1913 『歐米司法事務視察復命書』, 朝鮮總督府; 安住時太郎, 1913 『歐米司法事務視察復命書』, 朝鮮總督府; 松寺竹雄, 「植民地に於ける檢察及警察制度」 『朝鮮彙報』 1915년 3월; 松寺竹雄, 「植民地に於ける檢察及警察制度(承前)」 『朝鮮彙報』 1915년 6월; 松寺竹雄, 「植民地に於ける檢察及警察制度(完)」 『朝鮮彙報』 1915년 8월 참조.

34) 笠井健太郎, 1923 『歐米視察復命書』, 朝鮮總督府; 增永正一, 1927 『歐米に於ける訴訟手續の簡易化』 『(朝鮮)司法協會雜誌』 6-1; 增永正一, 1927 『歐米に於ける訴訟手續の簡易化(二)』 『(朝鮮)司法協會雜誌』 6-2; 增永正一, 1927 『歐米に於ける訴訟手續の簡易化(三)』 『(朝鮮)司法協會雜誌』 6-3; 增永正一, 1927 『歐米に於ける裁判の傾向』 『警務彙報』 251; 喜頭兵一, 1928 『獨逸新民訴訟法に於ける擔當判事Einzelrichter(一)』 『(朝鮮)司法協會雜誌』 7-10; 喜頭兵一, 1929 『獨逸新民訴訟法に於ける擔當判事Einzelrichter(五)』 『(朝鮮)司法協會雜誌』 8-2; 喜頭兵一, 1929 『我新民訴訟法に於ける口頭辯論の擬制と獨逸新民訴訟法に於ける記録に依るを裁判Aktenentecheidung(一)』 『(朝鮮)司法協會雜誌』 8-7 참조.

35) 宮本元, 1930 「革命以後に於ける獨逸國家保護法に付て」 『(朝鮮)司法協會雜誌』 9-8; 宮本元, 1930 「革命以後に於ける獨逸國家保護法に付て(二)」 『(朝鮮)司法協會雜誌』 9-9; 宮本元, 1931 「獨逸共和國保護法 Gesetz zum Schutze der Rebulik 21. vom Juli 1922 概論(1)」 『(朝鮮)司法協會雜誌』 10-3; 宮本元, 1931 「獨逸共和國保護法 Gesetz zum Schutze der Rebulik 21. vom Juli 1922 概論(9)」 『(朝鮮)司法協會雜誌』 10-11; 玉名友彦, 1935 「米國共產黨見聞記(2)」 『(朝鮮)司法協會雜誌』 14-3; 玉名友彦, 1935 「米國共產黨見聞記(3)」 『(朝鮮)司法協會雜誌』 14-6; 玉名友彦, 1935 「英國に於ける共產主義運動の概況(一)」 『(朝鮮)司法協會雜誌』 14-7; 玉名友彦, 1935 「英國に於ける共產主義運動の概況(三)」 『(朝鮮)司法協會雜誌』 14-9; 玉名友彦, 1935 「獨逸管見二三」 『(朝鮮)司法協會雜誌』 14-10; 渡邊純, 1936 「ナチス司法管見(一)」 『(朝鮮)司法協會雜誌』 15-1; 渡邊純, 1936 「ナチス司法管見(二)」 『(朝鮮)司法協會雜誌』 15-2; 渡邊純, 1936 「ナチス司法管見(三)」 『(朝鮮)司法協會雜誌』 15-3; 福田甚二郎, 1936 『歐米雜感』 『(朝鮮)司法協會雜誌』 15-1 참조.

었다.

구미 출장 교육 관료는 학무국장을 비롯한 조선총독부 학무국 고위 관료 및 시학, 관립 고등교육기관 교수 및 초·중등학교 교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시찰 목적(주제)은 크게 ① 교육과 종교의 관계, ② 동남아시아의 구미 식민지 교육 상황, ③ 전공분야에 대한 유학(연수)으로 정리할 수 있다.

기독교계 학교의 교육이 조선인의 의식을 깨어 식민지배 체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파악한 조선총독부는 1910년대에 학무국장을 구미에 파견하여 ‘학교와 종교와의 관계’를 시찰 조사하게 하였다.³⁶⁾ 이는 조선 내 기독교계 학교에 대한 통제정책을 위한 작업이었다.³⁷⁾ 1919년 3·1 운동 이후에는 식민지 교육정책에 대한 시사점 마련을 위해 주로 동남아시아에 교육 관료 파견이 집중되었다. 특히 초·중등학교 교장을 중심으로 한 시찰단을 조직하여 필리핀의 교육 상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이 특징적이다. 초등교육 수준에서부터 이미 실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필리핀의 교육과정은 농업을 중심으로 한 실업교육 강화를 내세운 조선총독부 교육정책에 참고 사례가 되었다.³⁸⁾

관립 고등교육기관 교수의 경우 일제강점 후기에 설치된 경성광산전문학교, 부산고등수산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전문학교(의학, 법학, 상업, 농림)에서 구미에 출장 파견되었다. 이들은 자신이 전공 분야에 대한 재교육, 연수 차원에서 구미에 파견되었다. 특히 경성의학전문학교의 경우 파견 인원(8명)이 나머지 세 전문학교의 합한 인원(8명)과 같을 정도로 많은 편이다. 이를 통해 의학(교육)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특별한 관심을 볼 수 있다.³⁹⁾

36) 日本國立公文書館 所藏, 『朝鮮總督府學務務局長關屋貞三郎外二名歐洲へ出張被仰付ノ件』, 大正2年05月31日(請求番号: 任B00677100); 日本國立公文書館 所藏, 『朝鮮總督府學務務局長關屋貞三郎米國へ出張被仰付ノ件』, 大正3年02月02日(請求番号: 任B00700100); 小松綠, 『教育宗教分離主義を論じ朝鮮の教育制度に及ぶ』, 『朝鮮彙報』 1915년 4월; 小松綠, 『朝鮮に於ける教育と宗教』, 『朝鮮彙報』 1916년 1월.

37) 關屋貞三郎, 『私立學校規則改正の要旨』, 『朝鮮彙報』 1915년 4월.

38) 崔哲岳, 1927 『漫遊記: 臺灣, 香港, 比律賓, 支那』; 後藤逸次, 『比律賓の農業教育』, 『文教の朝鮮』 43, 1929년 3월; 江頭六郎, 『比律賓の中學校』, 『文教の朝鮮』 49, 1929년 9월.

39) 조선총독부가 의학 분야의 인적 자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의학이 구미 제국 주위의 식민지배체제 강화를 위해 활용된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세기 후반부터

조선총독부의 의학 중시 경향은 <표 3>에서 보이듯 의료인의 구미 출장이 다수를 점한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총독부의원 및 자혜의원(도립병원) 의관을 구미에 파견하여 선진 의료기술 도입에 적극 나섰다. 구미 출장 형식으로 조선총독부 의관을 서구에 유학 보내는 제도는 1913년에 마련되었다. 1년에 1명의 정원으로 시작되었지만,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해부터 출장 파견 정원은 증가하였다.⁴⁰⁾

다음으로 농림수산 분야를 살펴보겠다. 조선총독부는 농업정책, 농업경영, 농사시험과 같이 농업 전체를 포괄하는 시찰 목적 이외에도 세부적인 분야에서 관료 재교육을 위해 구미 출장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표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5> 농림수산 분야별 구미 출장 추이

분야 시기	농업정책 농업경영	면화	작물 (佃作)	비료	잡업	산림	수산	축산	합계
1910-1919	1							1	2
1920-1929	5	1	1	1	1	1	2	2	14
1930-1939	1					1		1	3
합계	7	1	1	1	1	2	2	4	19

※ 출처 : <부록> 조선총독부 구미 출장 관료 명단.

구미 제국주의는 다수의 이민족을 항구적으로 지배하고 제국의 질서 속으로 통합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다. 이는 식민통치의 전략이 강점을 목적으로 한 무력 중심의 강압적이고 거시적인 통제에서 식민지 주민의 자발적인 순응을 유도하는 미시적 통제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의학은 이러한 새로운 통치 전략에 부응하는 ‘과학적 식민주의론’의 핵심 요소였다. 19세기 이래 의학은 서구 과학의 합리성과 우월함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학문 분야로, 구미와 식민지 간의 차이를 가시화하기에 적합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미 제국주의 국가는 의료·위생을 통해 억압보다는 식민지 주민의 자발적 동의에 기초한 지배를 추구하고자 했다. 조형근, 2009 『일제의 공식의료와 개신교 선교의료간 헤게모니 경쟁과 그 사회적 효과』 『사회와 역사』 82, 131-133면; David Arnold, 1993 “Colonizing the body: state medicine and epidemic disease in nineteenth-century Ind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David Arnold, 1994 ‘Public health and public power: medicine and hegemony in colonial India in Dagmar Engels’, “Contesting colonial hegemony : state and society in Africa and India”(Shula Marks eds), British Academic Press 참조.

40) 朝鮮總督府醫院, 1928 『朝鮮總督府醫院二十年史』, 30면.

농림수산의 구미 출장은 1916년 농업정책·농사시험 등의 시찰 조사를 위해 미국에 파견된 권업모범장장 혼다 코스케[本田幸介]를 필두로 총 19명이 파견되었다. 혼다 코스케는 파견은 농사시험 시찰 조사와 더불어 통감부 시기부터 추진된 일본 벼의 한국 이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⁴¹⁾ 하지만, 보급 초기와 달리 점차 일본품종 쌀의 생산량은 저하되어 재래품종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⁴²⁾ 이는 조선의 벼 재배 환경이 일본과 동일하지 않은 데다가 그 특성이 劣變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이다.⁴³⁾

이러한 상황에서 1920년대부터 ‘산미증식계획’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자 권업모범장을 ‘농업 장려기관’에서 ‘시험 연구기관’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토지개량이 뒷받침되지 않는 품종변경에서 나타난 한계를 절감한 조선총독부는 특히 토양과 시비기술(비료학) 연구를 중심으로 권업모범장을 연구기관으로 개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선총독부는 독일에서 토양·비료학을 연구한 큐슈제국대학 교수 農藝化學者 다이구하라 긴타로[大工原銀太郎]를 1923년 5월 권업모범장장으로 임명하였다.⁴⁴⁾ 그리고 권업모범장 기사[八田吉平]를 구미에 파견하여 농작물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시스템을 시찰 조사하게 하였다.⁴⁵⁾ 농업시험 연구기관에 대한 농업기술 관료의 파견은 1929년 9월 권업모범장이 농사시험장으로 개편된 이후 1930년대에도 꾸준히 이어졌다.⁴⁶⁾ 한편으로 쌀농사의 시비법을 중심으로 농업기술 시찰 조사를 위해 농무과 및 토지개량과 기사[飯島寬一郎, 三井榮長, 池田泰治郎]를 구미에 파견하였다.⁴⁷⁾

41) 本田幸介, 「北米視察雜感」 『朝鮮彙報』, 1917년 6월, 15-16면.

42) 허수열, 2011 『일제 초기 조선의 농업』, 한길사, 263-273면.

43) 劣變 문제는 1916년 조선총독부가 각 도 장관에게 지시한 농사 개량 10항목에 포함될 정도로 중요한 과제였다. 조선총독부 편(박찬승·김민석·최은진·양지혜 역주), 2018 『국역 조선총독부 30년사』(上), 민속원, 81-82면.

44) 김도형, 2009 『일제의 한국 농업정책사 연구』, 한국연구원, 107-112면.

45) 八田吉平, 「丁抹國立種子檢査所の事業概要(一)」 『勸業模範場彙報』 3, 1926년 6월; 八田吉平, 「丁抹國立種子檢査所の事業概要(二)」 『勸業模範場彙報』 5, 1926년 10월.

46) 山本尋己, 1935 「歐米の農業に就て」 『朝鮮鐵道協會會誌』 15-2; 山本尋己, 「歐米の旅草」 『北鮮開拓』 18, 1935년 12월.

한편 조선총독부는 쌀농사 중심의 농업장려 연구 풍토에서 벗어나기 위해 1920년 3월에 사리원에 佃作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권업모범장 서선지장, 목포에는 면작을 위한 용강면작출장소를 신설하는 등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즉 권업모범장은 1920년대에 들어 쌀농사를 위한 지도 장려 기관에서 벗어나 면화, 전작, 비료, 잠업 등 다양한 분야의 조사와 시험 중심 기관으로 개편되기 시작한 것이다.⁴⁸⁾ 1920년대에 권업모범장에서 다양한 분야의 농업 기술 관료를 구미에 출장 파견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⁴⁹⁾ 조선총독부는 1920년 면화 재배에 대한 전문적인 시찰 조사를 위해 권업모범장 기사(三原新三)를 인도, 이집트, 구미에 파견한 이래, 1920년대에 전작(高橋昇, 미국·독일), 비료(三須英雄, 구미), 잠업(西川久, 이태리·프랑스)을 주제로 한 다양한 농업 분야의 시찰 조사 활동을 전개하였다.⁵⁰⁾

산림과 수산 분야의 경우 이를 담당하는 특정 관서의 출범에 맞추어 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운영 사례를 시찰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관료를 출장 파견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총독부는 1926년 朝鮮林政計劃을 수립하여 식산국 산림과 출장소와 영림창으로 분산되어 있는 국유림 관리업무를 영림서로 통합하여 대량 벌채의 확대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26년 6월 영림서가 출범하였으며 그와 관련된 구미와 그 식민지의 사례를 시찰 연구하기 위해 1927년에 영림서 기사(後藤眞咲)가 파견되었다.⁵¹⁾ 한편 조선총독부는 해산선, 백무선 등을 부설하여 벌목한 나무의 대량 수송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영림서를 중심으로 하여 北鮮開拓事業을 시행하여 압록강·두만강 유역 삼림의 대량 벌목을 본격화하였다.⁵²⁾ 해당 지역의 영림서장(井芹正)에게 구미 삼림사업의 현황을 시찰하게

47) 三井榮長, 1926 『米國に於ける日本人の農業的才能其他雜感』 『朝鮮及滿洲』 223.

48) 김도형, 1995 『권업모범장의 식민지 농업지배』 『한국근현대사연구』 3.

49) 1929년 9월 17일에 공포된 『조선총독부농사시험장관제』(칙령 제279호)에 따라 권업모범장은 농사시험장으로 바뀌었다.

50) 가와타 히로시(김용권 옮김), 2010 『타카하시 노보루』, 동아일보사, 107-139면; 三須英雄, 1944 『朝鮮の土壤と肥料』, 東都書籍; 三須英雄, 1953 『朝鮮農業のありし姿』 『朝鮮學報』 5; 西川久, 1930 『家蚕ニ於ケル致死因子ニ就テ』, 東京帝國大學博士學位論文; 西川技師洋行, 『朝鮮新聞』 1928년 12월 27일.

51) 민족문제연구소, 앞의 책, 357-362면.

한 것은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수산의 경우는 아예 새로운 시험장을 창설하는 과정에서 관료가 파견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수산업계의 확대에 따라 관련 기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21년 부산 영도에 수산시험장 건립을 시작하였다.⁵³⁾ 아울러 관련 분야의 시찰 조사를 위해 이듬해인 1922년 초 수산업 전문 관료(松野二平)를 구미에 출장 파견하였다.⁵⁴⁾

축산 분야의 시찰과 조사를 주제로 한 구미 출장 파견은 1919년부터 1934년까지 모두 네 차례 이루어졌다.⁵⁵⁾ 하지만, 유이 타이지[油井岱治]가 두 차례 파견되었기에 파견된 인원은 모두 3명이다. 조선총독부는 1917년 6월 牧馬 업무를 관장하는 蘭谷지장을 신설하고, 세포출장소를 지장으로 승격하면서 牧羊업무를 전담시켰다. 노구치 지로조[野口次郎三]는 이들 지장이 신설·승격되자마자 장을 맡고 곧 구미 시찰 조사를 명받았다는 점에서 목마 및 목양을 주제로 파견된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유이 타이지 역시 해당 지장의 장을 맡으면서 관련 업무의 연수 차원에서 구미 시찰 조사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⁵⁶⁾ 마사루 나루리[名

52) 최병택, 2008 『일제하 전시체제기(1937~1945) 입업동원책과 삼림자원 공출』 『한국사학보』 32, 272-273면.

53) 1921년 출범 당시의 수산시험장은 서무계, 어로계(어로, 어선, 어구, 어장의 조사 및 탐사, 어획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조계, 양식계, 기본조사계(수산 동식물의 생물학적 조사, 해양·하천·湖沼의 이화학적 조사, 기구·기계 등에 관한 사항)로 구성되어 있었다. 1928년 12월에는 진해에 양식업 진흥을 위한 담수양식장을 설치하였으며, 1936년 12월에는 청진에 북부 지역 수산업을 위한 북산지장을 설치하였다. 이밖에 태안에는 김 작업장이 있었다. 한편 수산시험장과 별도로 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도수산시험장 각지에 설치되었다. 1944년에 들어 수산시험장과 도시시험장은 本場과 支場 체계로 개편되었다. 민족문제연구소, 앞의 책, 340-343면.

54) 마츠노 니헤이[松野二平]는 구미에서 수산물의 가치를 인식하고 식용뿐만 아니라 사료, 의약품 제조(인술린 추출 연구 등) 분야에서 물고기를 중심으로 한 수산물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였다. 특히 물고기를 중심으로 한 수산물을 오랫동안 보존하는 사례와 그에 관한 연구에 관심을 보였다. 여러 국가 중에서는 미국이 수산물의 유통과 연구 분야에서 독보적이라 여기고 그곳의 연구사례와 수산업계 동향을 중점적으로 시찰 조사하였다. 松野二平, 1924 『米國水産界の諸問題(一)』 『朝鮮之水産』 2; 松野二平, 1924 『米國水産界の諸問題(二)』 『朝鮮之水産』 3; 松野二平, 1924 『太平洋の漁業問題』 『朝鮮之水産』 4.

55) 野口次郎三(1919), 油井岱治(1920), 名倉勝(1922), 油井岱治(1934).

56) 油井岱治, 1937 『緬羊について』 『治刑』 15-11, 27-29면.

倉勝]는 구미 출장을 다녀온 이후의 행적을 추적해 볼 때 구미의 수역혈청에 관한 시찰 조사를 목적으로 파견된 사실을 알 수 있다.⁵⁷⁾

농림수산 중 특히 농업 분야와 관련된 구미 관료 파견은 전매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전매 분야의 구미 출장 추이는 <표 6>과 같다.

<표 6> 전매 분야별 구미 출장 추이

분야 시기	전매행정	연초	엽전	인삼	합계
1910-1919		1	1	1	3
1920-1929	5	2	1	1	9
1930-1939	4				4
합계	9	3	2	2	16

※ 출전 : <부록> 조선총독부 구미 출장 관료 명단.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총독부는 1910년대에 연초(岡田虎輔, 1914, 구미), 엽전(菅田勇, 1918, 미국·멕시코·멕시코), 인삼(伊森賢三, 1919, 지나·대만·홍콩) 분야의 기술 관료를 우선적으로 구미에 파견하였다. 당시 이들이 해당 분야의 어떠한 내용을 시찰 조사했는지 보여주는 자료는 찾기 어렵다. 하지만 이들 관료가 지속적으로 해당 분야에 종사하며 기술적인 부분을 연구한 점에

57) 名倉勝, 『家畜傳染豫防及び移出牛檢疫』, 『朝鮮』 190, 1931년 3월. 일본은 자국에서 발병한 가축 전염병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1900년대부터 수의학자를 한국에 파견하여 조사 활동을 벌였다. 이를 통해 牛疫를 중심으로 한 가축전염병이 중국과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들어온다는 결론을 내리고, 한반도를 이른바 '免疫帶'로 만든다는 구상을 하였다. 이는 1909년 한국에서 「수출우검역법」이 제정되고, 1911년 4월 도쿄에 농상무성 산하의 우역혈청제조소가 설립되는 결과를 낳았다. 우역혈청제조소는 도쿄의 수역조사소 구내에 임시 사무소를 설치했다가 11월 부산으로 이전되었다. 일본 정부의 산하 조직인 우역혈청제조소는 1918년 3월 조선총독부 소속 관청으로 이전되면서 수역혈청제조소로 명칭을 바꾸었다. 1922년에는 소속 관원 중 기사 3명을 6명으로 증원하였다. 마사루 나루라의 구미 시찰 파견은 이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時重初熊, 1905 『韓國牛疫其他獸疫ニ關スル事項調査復命書』; 민족문제연구소, 앞의 책, 336면; 심유정·최정업, 2011 「근대 수의 전문기관의 설립과정과 역사적 의미: 수출우검역소와 우역혈청제조소를 중심으로」, 『농업사연구』 10-1, 78-79면; 한미진, 2015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가축 방역 활동과 백정층의 변화」,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7면.

착안했을 때 해당 분야의 현장을 시찰하고 생산을 촉진할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⁵⁸⁾

전매정책에 관여했던 행정 관료들은 1920년대부터 파견되기 시작하여 1930년대까지 9명이 파견되었다.⁵⁹⁾ 1920년대의 경우 초반에 전매행정 관료의 파견이 집중되었는데 이는 1921년 연초전매제 실시와 관련된 것이었다.⁶⁰⁾ 연초는 조선총독부 재정 확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기에 관련 세계적인 연초 생산·소비 지역인 인도, 이집트 등지에 기술 관료 파견이 지속되었다.⁶¹⁾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조선총독부는 연초의 수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전시 체제에 필요한 재정을 확충하려 하였다. 실례로 1933년 연초로 올린 수익은 3,600여 만 원이었는데, 9년 뒤인 1942년에는 1억 4,000여 만 원으로 네 배가 넘게 증가하였다. 환언하면 평균 매년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셈이다.⁶²⁾ 이 과정에서 전매국 행정 관료의 구미 출장 파견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을 중심으로 연초 종류별 소비 현황, 수출입 상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수출 증진을 위해 해당 지역 당국자와 협의에 나섰다.⁶³⁾ 이들의 시찰 조사는 수출 대상 국가의 연초 소비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수출 전략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조선 연초의 생산을 독려하는 선전자료

58) 예컨대 다음과 같은 자료를 들 수 있다. 伊森賢三, 1928 『高麗人蔘作柄ノ氣象的考察附表 人蔘ニ關スル研究報告』, 朝鮮總督府專賣局開城出張所.

59) 林茂樹(1921), 高武公美(1922), 今村武志(1924), 大谷正之助(1924), 田中三雄(1927), 山澤和三郎(1931), 西本計三(1933), 信原聖(1937), 木下麟太郎(1939).

60) 今村武志, 1936 『專賣制度創設の苦心』 『朝鮮統治の回顧と批判』(朝鮮新聞社 編), 朝鮮新聞社, 239-240면. 인삼과 소금의 경우 1910년 이전부터, 아편은 1919년 6월에 전매제가 시행되었다. 조선총독부의 연초전매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영학, 2013 『한국 근대 연초산업 연구』, 신서원, 218-262면을 참고할 것.

61) 대표적인 사례로 다음과 같다. 佐藤憲三郎, 『埃及の煙草』 『朝鮮』 151, 1927년 12월; 佐藤憲三郎, 『印度の煙草』 『專賣通報』 1928년 1월; 唐澤信一, 『呂宋島に於ける煙草に就て』 『專賣通報』 1929년 3월; 唐澤信一, 『印度煙草に就て』 『專賣通報』 1929년 9월.

62) 이영학, 앞의 책, 265면.

63) 信原聖, 『フランスのたばこに就て』 『專賣通報』 1939년 9월; 信原聖, 『英・獨に於ける煙草に就て』 『專賣通報』 1939년 10월; 木下麟太郎, 『鮮産煙草海外進出の將來性』 『朝鮮』 276, 1938년 5월.

로 활용되었다. 연초 이외에 염전(山岸陸造, 1926)과 인삼(伊森賢三, 1929)을 주제로 한 기술 관료의 파견도 1920년대에 이어졌다.⁶⁴⁾

공업 분야에서는 모두 28명이 구미 출장을 다녀왔다. 분야별 파견 추이는 <표 7>과 같다.

<표 7> 공업 분야별 구미 출장 추이

분야 시기	토목 건축	광업	공업시험, 교육	인쇄	기상 관측	섬유	화학	양조	공업현황, 연료	합계
1910-1919	3	2	1	1			1			8
1920-1929	13	1			1	1		1	1	18
1930-1939	1	1								2
합계	17	4	1	1	1	1	1	1	1	28

※ 출처 : <부록> 조선총독부 구미 출장 관료 명단.

<표 7>에 정리된 공업 분야별 구미 출장 추이는 파견 관료의 이력 및 귀임 이후의 활동과 시찰 조사 내용을 종합해볼 때 크게 ① 조선총독부 청사 건립과 그에 따른 경성 개선 사업과 도시계획, ② 항만·저수지 건설 등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 ③ 기술자 양성, 공업원료 및 제품의 시험 조사를 중심으로 산업 지원, ④ 광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는 청사 신축에 관한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토목국 기사(國枝博)를 구미에 출장 파견하였다. 그를 통해 워싱턴⁶⁵⁾ 소재 미국 의사당(United States

64) 일본은 통감부 시기인 1909년부터 한국 염전의 설립 확장에 나서 1926년까지 3기 사업을 마무리 지었다. 야마기시 무쓰조[山岸陸造]는 1911년부터 줄곧 이 사업에 매진한 인물이었다. 조선총독부는 그간의 공로를 치하하고, 향후 소금 생산의 시사점을 마련하기 위해 야마기시 무쓰조를 1926년 구미에 출장 파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 스페인, 프랑스, 영국, 미국 주요 염전의 생산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시찰 조사하였다. 이는 소금의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소금을 공업용으로 활용하는 작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山岸陸造, 『歐米の鹽業を視察して(一)』 『專賣通報』 1927년 11월; 山岸陸造, 『歐米の鹽業を視察して(二)』 『專賣通報』 1927년 12월; 조선총독부 편, 앞의 책(上), 681면; 조선총독부 편(박찬승·김민석·최은진·양지혜 역주), 2018 『국역 조선총독부 30년사』(下), 민속원, 1046-1047면.

65) 1790년에 미국의 수도로 지정된 워싱턴은 프랑스인 랑팡(Pierre Charles L'Enfant,

Capitol)의 입지, 외형, 구조 등을 조선총독부 건축에 참고하였다.⁶⁶⁾ 조선총독부는 청사 신축 공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시기에 청사 뒤편 경복궁(富士岡重一, 1923)과 청사(笹慶一, 1925)의 관리를 책임지는 기술 관료를 구미에 출장 파견하기도 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청사 신축과 아울러 경성의 도시 위생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상수도 확장 및 하수도 시설 축조를 구상하였다. 대표적인 수인성 전염병인 콜레라 등이 대도시에 만연하여 어마어마한 인적 피해를 경험한 일본은 상하수도 시설을 중심으로 한 도시 위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⁶⁷⁾ 조선의 여러 도시 중 특히 경성은 조선총독부가 자리한 곳인 동시에 일본의 ‘근대화’를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곳이었다. 이는 조선총독부가 경성의 위생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이유라 생각된다. 조선총독부는 이에 대한 시사점을 마련하고 관련 현황과 기술을 조사하기 위해 1913년 토목국 기사(山岡元一)를 구미에 출장 파견하였다.⁶⁸⁾ 1920년대에 들어서는 도로망을 중심으로 한 경성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1754-1825)의 계획 아래 본격적으로 조성되었다. 랑팡은 모국인 프랑스의 파리는 물론 유럽 주요 도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워싱턴의 도시 구조를 설계하였다. 즉 워싱턴은 유럽 대도시의 경험이 함축된 곳이었다. Paul Caemmerer, 1970 “The life of Pierre Charles L’Enfant”, Da Capo Press 참조.

66) 國枝博, 1913 『歐米各國に於ける廳舎建築狀況』 『朝鮮總督府月報』 3-11. 쿠니에다 히로시 [國枝博]는 시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선총독부의 건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① 도시 어느 곳에서나 바라볼 수 있는 중심지에 청사를 지어야 함. ② 청사 앞으로 시내 도로가 지나가도록 해야 함(청사 앞의 교통 편의에 각별히 신경써야 함). ③ 청사의 성격을 행정 업무 처리 장소로 국한시키지 말고 관광 명소로 승화시켜야 함. ④ ③을 위해 건물 내외부를 최대한 수려하게 장식하고, 승강기와 같은 최신 설비를 대거 설치하여 근대적인 성격을 드러내야 함.

67) 김백영, 2009 『일제하 서울의 도시위생 문제와 공간정치』 『사총』 68, 196-197면.

68) 山岡元一, 『歐州大都市の經營狀態』 『朝鮮及滿洲』 82, 1914년 5월; 山岡元一, 『歐州大都市の經營』 『朝鮮及滿洲』 83, 1914년 6월. 야마오카 모토카즈[山岡元一]는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공업용수를 별도로 공급하는 체계에도 주목하였다. 실제 조선에서는 1920년대 후반 공업용수에 대한 수원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1930년대 초부터 그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工業用水水源池視察, 釜山商議の計畫, 『朝鮮新聞』 1929년 09월 07일; 仁川府外松林里에서 工場用水源發見 東洋紡績分工場設置可能, 『每日申報』 1932년 07월 03일; 慶尙南道, 工業用水料引上げ反對, 工業クラブから大島府尹に陳情, 『朝鮮新聞』 1933년 3월 25일 참조.

구미 출장도 이루어졌다(岩井長三郎).⁶⁹⁾

공업 분야 구미 출장에서 발견된 두 번째 특징은 항만, 방파제, 제방, 저수지 등과 같은 대규모의 토목공사와 관련된 관료를 대거 파견했다는 사실이다. 1915년~1932년까지의 기간 동안 14명의 토목기술 관료가 구미 출장을 명받았다. 1910년대의 경우 인천항을 중심으로 갑문(gate)을 이용한 항만 개축 공사⁷⁰⁾에 필요한 설비 시찰 조사가 주류를 이루었다.⁷¹⁾

1920년대 이후 파견된 토목기술 관료도 항만 시설을 시찰하였지만, 산미증식 계획이 진행되는 상황에 맞추어 구미는 물론 이집트,⁷²⁾ 인도 지역의 치수·수리·수운 시설과 관련 기술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는 특징을 보인다.⁷³⁾

산미증식계획에 따른 쌀의 증산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물의 공급이 선행되어야 했다. 하지만 조선은 계절에 따라 하천의 수량 변동이 심하였기에 조선총독부는 수리조합을 조직하여 곳곳에 저수지를 축조하고 제방을 쌓는 토목공사를 벌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의 근대적 토목기술과 접목된 인도·이집트 지역의 치

69) 岩井長三郎, 『歐米都市と其の建築』, 『朝鮮』 89, 1922년 8월.

70) 인천은 조일수호조규로 개항된 이후 그 역할이 증대된 곳이었지만 조수 간만의 차가 클 때는 10미터에 달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인천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강제병합 직후부터 開船渠 설치를 중심으로 인천항 개축에 나서 8년 동안의 공사를 거쳐 완공하였다. 『竣工된 仁川築港, 完成한 開船渠의 偉觀, 工事의 經過와 竣工後의 便利』, 『毎日申報』 1918년 10월 27일.

71) 坂出鳴海 조선총독부 토목기사의 담설, 『釜山日報』 1915년 9월 17일; 坂出鳴海, 『印度に就きて(一)』, 『朝鮮彙報』 1916년 8월; 坂出鳴海, 『印度に就きて(完)』, 『朝鮮彙報』 1916년 9월; 坂出鳴海, 『開船渠に就て』, 『朝鮮彙報』 1919년 3월.

72) 이집트는 나일강을 바탕으로 일찍이 농업이 시작된 지역으로, 나일강의 주기적인 범람에 대응한 치수·수리 시설과 기술이 축적된 곳이었기에 토목기술 관료가 주목한 곳이었다. 나일강은 하상계수가 낮은 곳이었지만, 강폭의 변화로 인해 강의 높낮이에도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1920년대 이후 이집트를 방문한 이들 관료는 이집트에서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는 방법과 실제 사례를 중점적으로 시찰 조사하였다. 本間孝義, 『ナイル河を見て』, 『朝鮮』 92, 1922년 11월.

73) 本間孝義, 『加州と水』, 『朝鮮』 84, 1922년 2월; 本間孝義, 『ナイル河を見て』, 『朝鮮』 92, 1922년 11월; 本間孝義, 『河川の現状と將來の施設』, 『朝鮮及滿洲』 213, 1925년 8월; 川澤章明, 『埃及の旅』, 『朝鮮』 156, 1928년 5월; 川澤章明, 『貯水と配水とに關する機械裝置の改良』, 『工事の友』 2-5, 1930년 9월; 武居軍次郎, 『曲線重力堰堤に就て』, 『工事の友』 1-2, 1929년 3월; 武居軍次郎, 『シャフト・スピルウエーの研究』, 『工事の友』 1-6, 1929년 11월.

수 사례는 조선총독부 토목기술 관료들의 관심을 끌었다.

공업 분야 구미 출장 파견의 세 번째 특징은 공업교육, 공업원료와 제품을 시험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산업을 지원하는 관료를 파견한 사실이다. 1913년~1926년까지 모두 6명이 출장을 명받았는데 중앙시험소 기사(3명)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중앙시험소 부속 공업전습소에서 파견된 인원까지 포함하면 모두 4명이 중앙시험소에 몸담고 있었다.⁷⁴⁾ 여기서 조선총독부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인 분야는 공업시험 및 공업교육이다. 조선총독부는 1913년 당시 공업전습소 기사(宇野三郎)를 구미에 파견하여 이 분야를 시찰 조사하게 하였다.⁷⁵⁾

한편 조선총독부는 강점 직후인 1912년 3월 공업에 관한 시험·분석, 연구 및 감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구인 중앙시험소를 설치하였다. 출범 당시 중앙시험소는 광물분석을 담당하는 분석부와 양조 시험 사무를 맡은 양조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후 1914년에 염직부, 요업부, 응용화학부가 신설되었다. 이와 같이 중앙시험소에는 점차 화학적 기초가 요구되는 업무가 부가되었으며, 응용화학부에는 전기화학 시험 사무가 추가되어 업무의 범위가 넓어졌다.⁷⁶⁾ 구미 화학 연구의 신경향을 파악하고 관련 기술 관료를 양성할 필요성이 점차 커진 것이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1919년 중앙시험소 기사(片山崑)를 구미에 출장 파견하였다.⁷⁷⁾

그 밖에 중앙시험소에서는 1922년에 양조 기술 관료(福本俊吉)를, 1926년에 섬유 기술 관료(室田武隣)를 구미에 출장 파견하였다. 전자의 시찰 조사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귀임 이후 양조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다는 사실에서

74) 이들의 명단과 시찰 조사 분야는 다음과 같다. 宇野三郎(1913, 경성공업전습소 기사, 공업시험·공업교육상황), 片山崑(1919, 중앙시험소 기사, 戰後 化學工藝), 福本俊吉(1922, 중앙시험소 기사, 양조), 後藤一郎(1923, 관측소장, 기상관측), 加茂正雄(1924, 연료선광연구소 소장사무취급, 세계동력회의 참석·공업현황), 室田武隣(1926, 중앙시험소 기사, 섬유).

75) 宇野三郎, 『英國マンチェスター市の實業教育』 『朝鮮彙報』 1915년 6월; 宇野三郎, 『獨逸の商工業者養成方法』 『朝鮮彙報』 1915년 7월.

76) 민족문제연구소, 앞의 책, 310면.

77) 片山崑, 1919 『朝鮮化學工業の原料及其前途』 『朝鮮及滿洲』 142; 片山崑, 1923 『朝鮮の化學工業に就て』 『朝鮮及滿洲』 182.

이와 관련된 시험 및 연구 사례를 시찰하고 조사한 것이라 짐작된다.⁷⁸⁾ 후자의 경우 세계적으로 잠사업이 발달한 프랑스를 집중적으로 시찰 조사하고 조선에서의 인견 생산 확대를 내세웠다.⁷⁹⁾

중앙시험소와 더불어 조선총독부의 공업 연구기관이었던 燃料選鑛研究所에서도 관료를 구미에 출장 파견하였다. 1922년 10월부터 사무를 개시한 연료선광연구소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석탄을 연료로 활용하는 구미의 기술을 도입하여 이를 조선산 석탄에 적용하는 시험을 주요 업무로 삼았다.⁸⁰⁾

1910년 석탄은 전체 연료 소비의 10% 내외를 차지했지만, 매년 그 규모가 증가하여 1910년대 말에 50% 이상으로 치솟았다. 조선에는 상당량의 무연탄이 매장되어 있었지만, 대부분은 산업 용도로 쓰기에 부적합하였다. 그리하여 일본, 중국에서 상당량의 석탄을 수입하였는데, 수입량은 조선 내 전체 석탄 소비의 80~90%에 달하였다.⁸¹⁾ 이런 상황에서 제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수입되는 석탄이 감소되어 연료 부족 문제가 부각되었으며 조선산 석탄을 수입 석탄에 대체할 필요성이 커졌다.⁸²⁾ 그리하여 조선총독부는 1920년 5월 다수의 공학박사로 구성된 '鮮滿시찰단'을 구성하여 탄전 조사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⁸³⁾ 또한 연

78) 福本俊吉, 1926 「酒質の統一改善上製麴に一層の努力を望む」, 『朝鮮釀造協會雜誌』 1-8; 福本俊吉, 1926 「酒造米の鑑定と精白程度の試験に就て」, 『朝鮮釀造協會雜誌』 1-9; 福本俊吉, 1927 「清酒の腐釀より銘酒に至る迄の改良徑路に就いて」, 『朝鮮釀造協會雜誌』 2-1; 福本俊吉, 1927 「清酒の腐釀より銘酒に至る迄の改良徑路に就て」, 『朝鮮釀造協會雜誌』 2-2.

79) 室田武隣, 1928 「人絹織物と絹織物の將來」, 『朝鮮及滿洲』 249; 室田武隣, 1928 「佛蘭西の養蠶業と生絲の需給狀況」, 『朝鮮及滿洲』 252; 室田武隣, 1929 「佛國織物工業の大勢」, 『朝鮮及滿洲』 261; 室田武隣, 1931 「朝鮮に於ける人絹需要の趨勢」, 『朝鮮經濟雜誌』 188. 1929년 대공황 이후 구매력이 더욱 꺾인 조선에서 저렴한 가격에 광택이 탁월한 인견의 판매량은 더욱 증가하였다. 이에 조선 내 직물회사는 종래 본건에 치중한 태도를 버리고 인견에 주력하게 되었다. 「朝鮮內絹織會社 人絹交織에 注力 生産高逐年増加」, 『每日申報』 1930년 5월 15일.

80) 燃料選鑛研究所, 「事業과 事務規程內容」, 『每日申報』 1922년 11월 3일; 「褐炭과 褐炭油, 燃料問題 解決策」, 『每日申報』 1923년 3월 3일.

81) 平壤商業會議所, 1927 『平壤全志』, 510-511면; 『每日申報』 1923년 3월 3일.

82) 朝鮮總督府殖産局鑛山課, 1933 『朝鮮鑛業의 趨勢』, 9면.

83) 鮮滿視察團 來城期 『每日申報』 1920년 5월 3일; 『每日申報』 1921년 10월 9일.

료선광연구소를 설치하고 이 시찰단의 일원으로 참여한 도쿄제국대학 교수 카모 마사오[加茂正雄]를 소장사무취급 촉탁으로 임명하였다.⁸⁴⁾

조선의 석탄 연료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굴된 석탄을 효율적인 연료로 가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했다. 하지만 일본에는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인력이나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⁸⁵⁾ 따라서 구미의 연구 성과를 조사하고 이를 조선의 석탄 가공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었다. 때마침 카모 마사오는 영국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동력회의에 일본 수석대표로 참석하게 되어 1924년 5월에 출장 피명되었다. 동력회의에는 다양한 형태의 동력설비뿐만 아니라 그를 구동하는 연료에 대한 연구 결과가 제출되었다.⁸⁶⁾ 이들 기술은 연료선광연구소의 조선산 석탄 시험에 그대로 적용되어 조선산 무연탄의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되는 기초를 마련하였다.⁸⁷⁾

한일 강제병합 직후 조선총독부는 광업 시찰과 조사를 목적으로 한 관료를 구미에 가장 먼저 파견할 정도로 광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 즉 조선의 지하자원 파악과 침탈을 급선무로 여긴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1915년 12월 24일 『朝鮮鑛業令』(제령 제8호, 1916년 4월 1일 시행)을 공포하여 광업권자를 일본인 및 일본 법령에 의해 성립한 법인으로 한정하여(제6조) 광업을 독점하는 한편 광업을 위한 토지의 사용 및 수용을 규정하여(제32조 1항) 광업 자원의 수탈을 합법화

84) 『每日申報』 1924년 4월 29일. 카모 마사오[加茂正雄]는 1898년 도쿄제국대학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모교 조교수로 부임하였다. 1906년부터는 약 7년간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유학하여 기계는 물론 공학을 폭넓게 공부하였다. 愛媛新聞社, 1987 『愛媛縣人名大事典』 참조.

85) 연료선광연구소의 설립(1922)은 일본에서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연료조사위원회에 비해 4년이나 앞선다. 박기주, 2009 『식민지기 조선의 석탄 수요구조와 정책』 『대동문화연구』 67, 567면.

86) 제1회 세계동력회의에서 수집한 자료와 구미 각지의 시찰 조사를 통해 카모 마사오는 석탄을 미세한 가루로 분쇄하여 일정한 압력과 공기로 연소시켜 연소효율을 높이는 미세분연법[粉碎焚燃法, Pulverized (coal) firing, 현재 한국에서는 '微粉炭燃燒'라 지칭]과 석탄을 고온으로 열분해하여 코크스, 타르, 가스 등의 유용물질을 추출하는 저온건류(低溫乾溜, Low temperature carbonization)에 주목하였다. 加茂正雄, 1925 『歐米工業界管見』, 工政會出版部.

87) 朝鮮總督府殖産局燃料選鑛研究所, 1926 『石炭試驗報告』 1; 朝鮮總督府殖産局燃料選鑛研究所, 1927 『石炭試驗報告』 2 참조.

하였다.

법적으로 일본의 광업 독점 및 확대 체제를 구축한 조선총독부는 일본인 자본가와 기업이 조선의 광상을 파악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광상 조사 전문가를 기르고 관련 조직을 출범하기 위해 광무과장 및 기사를 구미에 파견하였다. 실제 이들은 귀임 이후에 한반도에 대한 체계적인 최초의 지질조사를 벌이고 지질도를 제작하여 일본 자본가와 기업의 광업 출원을 촉진하였다.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소(지질조사소, 연료선광연구소)를 설립하여 이들의 광업 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⁸⁸⁾ 광업 관련 기사의 구미 출장은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작업을 뒷받침하였다.

철도 관료의 경우 주로 (부)참사, 기사와 같은 철도 고위 관료가 파견되었다. 1910년대에는 5명의 철도 경영 관료와 5명의 철도 기술 관료가 구미 출장을 떠났다. 조선철도의 국제 연락운수 체제 편입과 구미 철도 영업 상황에 대한 시찰 조사는 이 시기 구미 출장의 주요 목적이었다.⁸⁹⁾ 한편으로 조선철도의 운영 모델을 찾는 작업도 이루어졌다.⁹⁰⁾ 1920년대에는 3명의 철도 경영 관료와 2명의 기술 관료가 구미에 출장 파견되었다. 자동차 운송업 통제에 관한 시찰 조사는 이 시기 출장의 주요 과제였다.⁹¹⁾ 조선총독부는 조선 내에서 발달하고 있는 자

88) 광무과는 1911년에 광상조사반을 두고 1917년까지 주요 지역 광산과 허가출원광구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여기에는 구미에서 광업을 시찰하고 돌아온 광무과장 무라다 소이치로[村田素一郎]의 경험이 큰 기여를 하였다. 7년간의 광상조사 작업을 마칠 무렵 조선총독부는 보다 전문적인 지질조사 업무를 위해 광무과 주임기사 카와사키 시게타로[川崎繁太郎]를 유럽, 미국 및 호주에 파견하였다. 카와사키 시게타로는 1918년 5월 귀임 직후에 주도적으로 지질조사소를 조직하였으며 한반도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 지질조사 업무를 개시하였다. 그는 광업 현황 조사와 채굴 기술 연수를 위해 1929년에 재차 구미와 남아프리카에 파견된 인물로 광무과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다. 『朝鮮總督府官報』 1918년 5월 22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9 『KIGAM 발자취』 Vol.1 역사집, 46-52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9 『KIGAM 발자취』 Vol.3 연표집, 13면.

89) 三本武重, 『歐洲に於ける國際連結運輸』 『朝鮮總督府月報』 4-2, 1914년 2월; 老川慶喜, 2016 『日本鐵道史 大正・昭和戰前篇: 日露戰爭後から敗戰まで』, 中央公論新社, 133-136면.

90) 新田留次郎, 1912 『白耳義國地方鐵道』, 朝鮮總督府鐵道局.

91) 澤崎修, 『朝鮮に於ける自動車營業と鐵道業』 『朝鮮鐵道協會會誌』 6-8, 1927년 8월; 澤崎修, 『獨逸の交通機關の話』 『朝鮮鐵道協會會誌』 7-9, 1928년 9월; 澤崎修, 『巴里市内の交通機關の事など』 『朝鮮鐵道協會會誌』 7-8, 1928년 8월; 澤崎修, 『乗合自動車發達の趨勢』

동차 운송업이 철도영업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여기고 그를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920년대에 철도국 관료를 구미에 출장 파견하여 관련 법안과 사례를 시찰 조사하게 하였다.

체신의 경우 1914년부터 1937년까지 모두 19명의 관료가 구미 출장에 파견되었다. 1912년 우편, 전신, 전화, 전기 사업 관장을 위해 조직된 체신국은 1918년 해원양성 및 우편저금, 1923년 발전수력 조사, 1927년 항공 업무, 1929년 간이생명보험사무 등 다양한 사업이 추가되면서 철도국과 함께 조선총독부의 최대 관서로 성장하였다. 출범 당시 6개 부서는 일제강점 말기에 이르러 16개로 확장되었다.⁹²⁾ 체신 관료의 구미 출장은 체신국의 관장 범위 확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새로운 업무의 추가와 부서 신설에 따라 담당 관료의 연수 차원에서 구미 출장이 지속되었다.

4. 결어

조선총독부는 1910년부터 1939년까지 출장의 형식으로 321명의 관료를 구미에 파견하였다.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을 중심으로 구미 각국은 물론 그들의 식민지를 대상으로 한 구미 출장은 주임관 이상의 고등관이 파견되었다. 구미 출장은 관료의 업무 능력을 인정하고 그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기에 조선 내에서 '제2의 등용문'으로 여겨졌다. 구미 출장에 파견된 조선인은 5명에 불과했으며, 이 중에서 3명이 식민지가 아닌 구미 본국을 시찰 조사하였다. 1920년대 들어 처음으로 시작된 조선인 관료의 구미 출장은 차별적인 대우에 불만을 가진 조선인 관료를 무마하고 그들의 충성을 유도하는 조치의 일환이었다.

1910년부터 시작된 구미 출장은 1912년~1913년에 급증하였지만 제1차 세계대

(一) 『朝鮮鐵道協會會誌』 8-4, 1929년 4월 참조.

92) 민족문제연구소, 앞의 책, 313-327면. 1943년 9월 기준 체신국 부서는 다음과 같다. 서무과, 감리과, 보험감리과, 보험운용과, 보험계약과, 보험지불과, 보험징수과, 경리과, 공무과, 해사과, 항공과, 체신리원양성소, 해원양성소, 고등해원양성소, 보통해원양성소, 간이보험요양소.

전의 발발로 급감하였다. 하지만 종전과 동시에 급증하여 1920년대 구미 출장 인원은 매년 평균 22명에 달하였다. 구미 출장에는 행·재정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1920년대 조선총독부는 개인의 출장 기간을 줄이더라도 보다 많은 관료에게 구미 출장의 기회를 준다는 태도를 견지했기에 해당 시기의 구미 출장은 확대되었다. 3·1 운동 직후 조선 총독으로 부임한 사이토는 악화된 국제 여론을 무마하는 한편 효과적인 조선 통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관료를 구미에 파견하였다. 1929년 대공황과 1930년대 전시체제의 확대로 인해 1930년대 구미 출장 인원은 연평균 5명으로 급감했으며 1939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

출장 목적의 유무, 귀임 이후 업무의 연속성 등을 기준으로 구미 출장 관료의 분야를 일반행정, 사법, 교육, 의료, 농림수산, 전매, 공업, 철도, 체신으로 구분했을 때 행정과 교육이 전체 출장 인원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출장 기간은 평균 10개월이었는데 기술 습득이 주요 목적인 의료와 공업 분야의 출장 기간 다소 긴 편이었다.

여러 관청을 순환 근무하는 일반행정 관료의 구미 출장은 대부분 명확한 출장 목적없이 전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다른 분야의 경우 조선총독부가 직면한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거나 관료의 특정한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한정된 분량 안에서 구미 출장을 전체적으로 다루어 관료의 시찰 조사 내용은 물론 그것이 조선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이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각 분야별로 보완될 것이다. 아울러 구미 출장 제도를 재외연구원제도와 결부하여 조선총독부의 구미 시찰 조사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도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주제어 : 관료연수, 구미출장, 식민지배, 조선총독부, 통치체제, 해외시찰, 해외출장, 구미시찰

투고일(2020. 4. 29), 심사시작일(2020. 5. 14), 심사완료일(2020. 5. 26)

〈부록〉 조선총독부 구미 출장 관료 명단

	연도	성명	파견 당시 직위	출생	연령	출신학교	지역	기간	분야	주제 및 특징
1	1910	村田素一郎	농상공부 광무과장	1873	38	東京帝大 採鑛冶金	구미	15	공업	광업
2	1911	新田留次郎	철도국 기사	1873	39	東京帝大 土木	구미	12	철도	철도사업
3	1912	太田清松	헌병대위	1881	32		러시아		행정	日露鐵道連絡會議 참석 관료 경호
4	1912	木藤克己	통역관				러시아		행정	日露鐵道連絡會議 참석 관료 통역
5	1912	鈴木穆	탁지부 사세국장	1874	39	東京帝大 法學	구미	8	행정	세금 제도
6	1912	秋山雅之介	총독관방 참사관	1866	47	東京帝大 法學	구미	5	행정	
7	1912	安住時太郎	사법부 형사과장	1872	41	第五高等學校	구미	8	사법	영국(식민지) 사법제도
8	1912	渡邊暢	고등법원장	1858	55	司法省法學校	구미	8	사법	프랑스(식민지) 사법제도
9	1912	室谷脩太郎	의원의관				구주		의료	
10	1912	國枝博	토목국 기사	1879	34	東京帝大 建築	구미	8	공업	조선총독부 신축을 위한 관청 건축 및 호텔 건설방법
11	1912	山田龜治	철도국 기사				구미	12	철도	정차장 설비
12	1912	加藤正美	철도국 참사	1879	34	京都帝大 法學	구미	10	철도	시베리아경유국제 여객운수회의 참석, 철도상황
13	1912	岸利信	철도국 서기	1879	34		러시아	4	철도	日露鐵道連絡會議 참석
14	1912	安藤又三郎	철도국 참사	1877	36	東京帝大 法學	구미	10	철도	日露鐵道連絡會議 참석, 철도영업
15	1913	入江海平	회계과 과장	1881	33	東京帝大 法學	구주	11	행정	
16	1913	松寺竹雄	검사	1870	44	東京帝大 法學	구주	8	사법	검찰·경찰제도
17	1913	關屋貞三郎	학무국장	1875	39	東京帝大 法學	구주	13	교육	학교와 종교와의 관계 식민지 교육제도
18	1913	藤井虎彦	의원의관	1874	40	東京帝大 醫學	구주	18	의료	산부인과
19	1913	山岡元一	토목국 기사				구주	8	공업	치수관개, 河海공사, 도시개발 상하수도
20	1913	宇野三郎	경성공업전습소 기사	1878	36	東京高等工業教員養成所	구미	12	공업	공업시험, 공업교육상황
21	1913	佐藤周吉	철도국 기사	1886	28	北海道帝大 土木	구미 남미 인도		철도	특수철도

22	1913	黑澤明九郎	철도국 용산공장 기사	1876	38	東京帝大 機械	미국 독일	9	철도	미국, 독일에 주문한 객차, 기관차 제작 감독 및 기관차 제작 기술
23	1913	武内三省	철도국 서기				러시아 독일	4	철도	시베리아경유국제 여객운수회의 참석
24	1913	三本武重	철도국 참사	1868	46	慶應義塾	구미	8	철도	시베리아경유국제 여객운수회의 참석, 국제교통상황
25	1914	岡田虎輔	전매과 기사	1873	42	札幌農大 農學	구미	11	전매	연초
26	1914	勝山重巽	총무국 인쇄소 기사	1867	48	東京印刷局 印刷部 彫刻課	구주 미국	12	공업	兌換券 및 인쇄에 관한 사항
27	1914	矢野義二郎	체신국 서기관	1879	36	東京帝大 法學	구주 미국	8	체신	통신사업 일반, 우편저금 장려, 우편 관서에서 취급하는 통신 이의 사무경영실황
28	1914	中野深	철도국 기사	1878	37	東京帝大 土木	구주 미국	8	철도	단선 철도가 엇갈리는 정거장 설비, 지방철도
29	1915	植村俊二	의원의관	1876	40	東京帝大 醫學	구주	19	의료	외과학
30	1915	坂出鳴海	토목국 공무과장	1876	40	東京帝大 土木	구미 인도 이집트	9	공업	각국 식민지 수리사업, 戰時 운수 교통 상황
31	1916	人見次郎	농상공부 농무과장	1879	38	東京帝大 法學	구주	7	행정	소농보호제도, 戰時 식료품 수급 및 그 가격 조절책, 전쟁에 의한 실업자 보호에 관한 시설 기타 산업
32	1916	矢野久三郎	부산세관장	1872	45	東京帝大 法學	구주	6	행정	본국·식민지 사이의 관세 제도, 공업 기타 산업 장려에 관한 관세 정책 상황
33	1916	有馬英二	의원의관	1883	34	東京帝大 醫學	구주	19	의료	내과, 흉부 린트겐 촬영
34	1916	本田幸介	권업모범장장	1864	53	駒場農學校 農學	미국	7	농림 수산	농사시험사업, 농업교육, 목축, 농업정책
35	1917	中村竹藏	경성복심법원 검사장	1869	49	東京帝大 法學	구미	5	사법	재판소, 감옥 (1차 대전 격화로 인해 조기 귀임)

36	1917	小河原義照	시학관			필리핀제도, 홍콩, 불령 인도차이나, 자바섬, 영령 해협식민지, 인도	5	교육	식민지 교육 제도 실태	
37	1917	河野衛	의원의관	1881	37	東京帝大 醫學	구주	15	의료	소아과
38	1917	氏家參顯	자혜의원장	1876	42	東京帝大 醫學	구주	20	의료	외과
39	1918	川崎繁太郎	광무과 기사	1878	41	東京帝大 地質	구미 호주	12	공업	지질조사 사업 광업 현황
40	1918	菅田勇	전매과 광양만출장소 장	1875	44		미국 멕시코 캐나다	8	전매	염전 축조, 소금 생산
41	1918	宮館貞一	경무총감부 경시	1871	48	東京法學院	미국 영국 프랑스	7	행정	
42	1918	松井房治郎	원산세관장	1881	38	東京帝大 法學	필리핀, 영령 동인도, 호주	6	행정	관세 제도 및 사무
43	1918	寺尾規矩郎	신의주세관 지서장	1870	49		인도 해협	6	행정	관세 제도 및 사무
44	1918	林繁藏	관세과장	1887	32	京都帝大 法學	미주	6	행정	관세 제도 및 사무
45	1918	渡邊晋	의원의관	1879	40	東京帝大 醫學	구미	19	의료	피부·비뇨기과
46	1918	水津信治	의원의관	1882	37	京都帝大 醫學	구미	25	의료	정신과
47	1918	久德隆篤	자혜의원장	1878	41	京都帝大 醫學	구미	18	의료	내과
48	1919	田中卯三	농상공부 산림과장	1881	39	東京帝大 法學	구미 아프	11	행정	관세 제도 및 사무
49	1919	稅田谷五郎	관세과 기사	1878	42	東京高等工業 學校 應用化學	구미 아프	11	행정	관세 제도 및 사무
50	1919	澤田豊丈	총독부 내무부 제1과장	1881	39	東京帝大 法學	지나 인도 구미	15	행정	
51	1919	矢鍋永三郎	총독부 이재과장	1880	40	東京帝大 法學	지나 인도 구미	12	행정	관세 제도 및 사무
52	1919	時永浦三	경무총감부 보안과장	1884	36	東京帝大 法學	아일 구미	15	행정	
53	1919	内村安太郎	자혜의원장	1877	43	東京帝大 醫學	구미	12	의료	내과(소화기)
54	1919	久慈直太郎	의원의관	1881	39	東京帝大 醫學	구주	25	의료	산부인과
55	1919	野口次郎三	권업모범장 기사	1869	51	東京帝大 獸醫學	구미		농림 수산	축산
56	1919	伊森賢三	전매국	1879	41	東京帝大 農學	지나		전매	인삼 생산·판매

			개성출장소 기사				대만 홍콩			
57	1919	片山嘉	중앙시험소 기사	1881	39	東京帝大 製藥化學選科	구미	15	공업	戰後 化學工藝
58	1919	島田志良	체신국 사무관	1877	43	東京帝大 法學	구미	12	체신	戰後 통신사업 해운정책
59	1920	生田清三郎	상공과장	1884	37	東京法學院	지나 인도 구미	9	행정	
60	1920	安武直夫	문서과장 통계과장	1887	34	東京帝大 法學	구미	12	행정	
61	1920	白上佑吉	경무국 사무관	1884	37	東京帝大 法學	구미	12	행정	
62	1920	鷹松龍種	경성전수 교수	1882	39	京都帝大 法學	구미	15	교육	민법
63	1920	坂井清	의원의관	1874	47	東京帝大 醫學	구미	21	의료	이비인후과
64	1920	早野龍三	의원의관	1881	40	東京帝大 醫學	구미	15	의료	안과
65	1920	岩淵友治	자혜의원장				구미		의료	내과
66	1920	佐藤剛藏	경성의학 교수	1880	41	京都帝大 醫學	구미		교육	醫化學
67	1920	莊鳳四郎	의원의관	1881	40	京都帝大 醫學	구미	4	의료	외과
68	1920	油井岱治	권업모범장 기사	1888	33	東京帝大 獸醫學	미국 캐나다 영국	14	농림 수산	축산
69	1920	植木秀幹	수원농림 교수	1882	39	東京帝大 林學實科	구미		교육	임학
70	1920	三原新三	권업모범장 목포면작지장 기사			東京帝大 農學	인도 이집트 구미	20	농림 수산	면화
71	1920	更田信彌	경성공업 교수	1873	48	東京高等工業 學校	구미		교육	화학공업, 공업교육
72	1920	高崎齊	체신국 기사	1882	39	京都帝大 電氣	구미		체신	전기
73	1921	大塚常三郎	내무국장	1880	42	東京帝大 法學	인도 이집트 아일 구미	14	행정	
74	1921	半井清	서무부 문서과장	1888	34	東京帝大 法學	지나 인도 구미	9	교육	기독교 교육사업 시찰
75	1921	林茂樹	전매국 사무관	1885	37	東京帝大 法學	이집트 구미 캐나다	14	전매	
76	1921	千葉了	경기도 경찰부장	1884	38	東京帝大 政治	지나 인도 구미	12	행정	

77	1921	田中玄黃	평양고등보통 학교장	1865	57	미시간(Michigan)대 필리핀제도, 홍콩, 불령 인도차이나, 자와섬, 태국, 영령 해협식민지, 인도	5	교육		
78	1921	高橋亨	대구고등보통 학교장	1878	44	東京帝大 支那哲學	구미	14	교육	
79	1921	柴崎鐵吉	경성중학교장	1866	56	東京師範	구미	10	교육	
80	1921	千葉叔則	의원의관				구미	13	의료	내과
81	1921	石藤文七	자혜의원장				구미		의료	외과
82	1921	境田民彌	자혜의원				구미		의료	산부인과
83	1921	吉木彌三	의원 약제관	1882	40	東京帝大 藥學	구미	9	의료	약물학
84	1921	本間孝義	토목부 기사	1885	37	東京帝大 土木	구미 이집트		공업	치수·수리시설, 과 기술
85	1921	岩井長三郎	총독부 건축과장	1879	43	東京帝大 建築	구미		공업	도시계획
86	1921	岩崎眞雄	철도국 기사	1880	42	東京帝大 機械	구미		철도	
87	1922	平井三男	평안남도 내무부장	1884	39	東京帝大 法學	알제리 인도 구미	12	행정	
88	1922	篠原英太郎	식산국 농무과장	1885	38	東京帝大 法學	구미	13	행정	
89	1922	古橋卓四郎	경찰관 강습소장	1883	40	東京帝大 法學	구미	12	행정	
90	1922	新庄祐治郎	경상북도 경찰부장	1883	40	京都帝大 法學	구미	10	행정	
91	1922	高武公美	전매국 사무관	1883	40	東京帝大 法學	구미	12	전매	
92	1922	園田寛	외사과장	1883	40	東京帝大 法學	구미	4	행정	
93	1922	守屋榮夫	서무부장	1884	39	東京帝大 法學	아일 구미	11	행정	
94	1922	笠井健太郎	검사	1877	46	京都帝大 法學	구미	13	사법	
95	1922	小林晴治郎	경성의학 교수	1884	39	東京帝大 動物學	이집트 구미		교육	기생충학, 의학적 동물학
96	1922	久保武	경성의학 교수	1879	44	第四高等學校 醫學	구미		교육	해부학
97	1922	大澤勝	경성의학 교수	1891	32	東京帝大 醫學	구미	20	교육	약물학
98	1922	野川弘	자혜의원				구미	16	의료	내과
99	1922	上村直親	자혜의원				구미		의료	내과
100	1922	桐原眞一	경성의학 교수	1889	34	東京帝大 醫學	구미	14	교육	외과
101	1922	吉野麟至	자혜의원	1880	43	東京慈惠醫院	구미	13	의료	내과

						醫學院				
102	1922	名倉勝	농무과 기사	1884	39	東京帝大 獸醫學	구미		농림수산	축산
103	1922	福本俊吉	중앙시험소 기사	1884	39	東京帝大 農藝化學	구미		공업	양조
104	1922	松野二平	수산시험장 기사	1887	36	東京帝大 水産學	지나 남만주 호주	9	농림수산	수산업 현황
105	1922	八尋生男	전라북도 농업기사	1881	42	東京帝大 農學	구미	10	농림수산	농업정책
106	1922	榛葉孝平	토목부 부산출장소 기사	1879	44	東京帝大 土木	구미		공업	
107	1922	小山一德	경성공업 교수	1886	37	東京帝大 應用化學	구미		교육	화학교육
108	1922	森爲三	경성제1고등 보통학교 교유	1884	39	東京帝大 博物	구미		교육	박물관 및 명승 천연기념물에 관한 사무
109	1922	佐佐木仁	체신국 기사	1887	36	東京帝大 電氣	구미		체신	통신기술
110	1922	山本直太郎	체신국 감리과장	1885	38	東京帝大 法學	구미	16	체신	통신제도
111	1923	金基善(조)	전매국 부사무관	1881	43	日本大學 政治科	구미	11	행정	
112	1923	渡邊豊日子	농무과장	1885	39	東京帝大 法學	구미	17	행정	
113	1923	黒木吉郎	광무과장	1884	40	東京帝大 法學	구미	17	행정	
114	1923	山口安憲	총독관방 감찰관	1887	37	東京帝大 法學	구미	12	행정	
115	1923	山田一隆	경찰관강습소 교수				구미	12	행정	
116	1923	木田川奎彦	총독관방 촉탁	1873	51	福井中學校	아일	13	행정	아일랜드 식민지 제도
117	1923	石黒英彦	내무국 지방과 사무관	1884	40	東京帝大 法學	구미	12	행정	
118	1923	今村重藏	통역관	1879	45	東京高等師範學校	구주	14	행정	
119	1923	原正鼎	법무국 민사과장	1881	43	京都帝大 法學	구미	13	사법	
120	1923	吾孫子勝	경성법학교장	1876	48	東京帝大 法學	구미	11	교육	
121	1923	重田勘次郎	시학관				인도 구미	13	교육	
122	1923	岩井誠四郎	경성의학 교수	1886	38	東京帝大 醫學	구미	17	교육	내과
123	1923	柳樂達見	경성의학 교수	1889	35	京都齒科醫學學校	구미	12	교육	치과

124	1923	河本壽登	자혜의원				구미		의료	외과학
125	1923	有馬長次郎	자혜의원장	1878	46	京都帝大 醫學	구미		의료	외과학
126	1923	高樹宇一	수원농림 교수			東京帝大 農藝化學	구미	10	교육	비료, 농업교육
127	1923	鈴木坂鐵	토목부 공사와장	1873	51	東京帝大 土木	구미		공업	
128	1923	富士岡重一	토목부 경복궁출장소 장	1886	38	東京帝大 建築學科	구미		공업	
129	1923	後藤一郎	관측소장	1884	40	東京帝大 理論物理	구미		공업	기상관측
130	1923	中山千秋	체신국 기사	1887	37	京都帝大 土木	영국 스위스		체신	수력발전, 치수
131	1924	今村武志	전매국 서무과장	1880	45	東京帝大 法學	홍콩 마닐라 지나	6	전매	
132	1924	馬野精一	경찰관강습소 장	1884	41	早稻田大	구미	8	행정	문화 시설 및 경찰행정 상황
133	1924	關水武	경무국 위생과장	1883	42	東京帝大 法學	구미	8	행정	
134	1924	大西一郎	총독부 조사과장	1887	38	東京帝大 法學	구미	8	행정	
135	1924	井上主計	재무국 관세과장	1883	42	東京帝大 法學	구미	9	행정	
136	1924	岡崎哲郎	총독관방 회계과장	1885	40	東京帝大 法學	구미	8	행정	
137	1924	松本誠	전라북도 내무부장	1883	42	東京帝大 法學	구미	9	행정	
138	1924	矢島杉造	내무국 사회과장	1889	36	東京帝大 法學	구미	12	행정	
139	1924	大谷正之助	전매국 사무관				구미	12	전매	
140	1924	深澤新一郎	경성복심법원 부장	1875	50	東京帝大 法學	구미	14	사법	
141	1924	志賀潔	의원장	1870	55	東京帝大 醫學	구미		의료	미생물학
142	1924	成田夫介	의원의관	1892	33	東京帝大 醫學	구미		의료	내과
143	1924	及川邦治	자혜의원	1883	42	千葉醫學	구미		의료	이비인후과
144	1924	千葉元枝	자혜의원				구미		의료	
145	1924	八田吉平	권업모범장 기사	1878	47	東京帝大 農學	구미	10	농림 수산	농업경영 현황
146	1924	飯島寛一郎	전라북도 농무과 기사	1888	37	東京帝大 農學	구미	12	농림 수산	농업경영 현황
147	1924	三井榮長	농무과 기사	1879	46	東京帝大 農學	구미	10	농림 수산	농업정책

148	1924	加茂正雄	연료선광 연구소 소장사무취급	1876	49	東京帝大 機械工學	구미	8	공업	세계동력회의 참석, 구미 공업의 현황
149	1924	高橋利三郎	체신국 사무관				구미	11	체신	
150	1925	松村松盛	조선총독 비서관	1886	40	東京帝大 法學	구미	10	행정	
151	1925	中村寅之助	의사과장	1889	37	東京帝大 法學	구미	8	행정	
152	1925	石川登盛	경무국 위생과장	1885	41	東京帝大 法學	구미	8	행정	
153	1925	佐藤七太郎	경기도 내무부장	1881	45	東京帝大 法學	구미	8	행정	
154	1925	増永正一	관사	1882	44	東京帝大 法學	구미	8	사법	訴訟手續 簡易化 상황
155	1925	松井權平	의원의관	1884	42	東京帝大 醫學	구미	17	의료	외과
156	1925	吉田準一郎	도립의관				구미		의료	내과
157	1925	原藤孝一	도립의관				구미	13	의료	
158	1925	脇谷洋次郎	수산시험장장			東京帝大 水産學	하와이 미국	6	농림 수산	국제회의 참석, 수산사업 동향
159	1925	池田泰治郎	식산국 토지개량과 기사	1883	43	東京帝大 農學	인도 이집트 구미	9	농림 수산	농업정책
160	1925	佐藤憲三郎	전매국 기사	1886	40	札幌農學大學	구미		전매	연초
161	1925	野口耕一	토목과 기사	1881	45	東京帝大 土木	구미		공업	
162	1925	笹慶一	건축과 기사	1887	39	東京帝大 建築科	구미		공업	
163	1925	野方寅吉	청진토목출장 소장	1885	41	第五高等學校 土木	남양 군도 구미		공업	
164	1925	吉村謙一郎	체신국 해사과장	1880	46	東京帝大 法學	구미	8	체신	
165	1925	佐藤作郎	철도국 참사	1893	33	東京帝大 法學	구미		철도	모스크바 세계철도사무 회의 참석, 철도상황
166	1925	清水幸次	철도국 기사	1888	38	京都帝大 土木	구미	14	철도	保線業務 신호기 연동장치 기타 보안설비
167	1925	内藤眞治	철도국 부참사	1891	35	東京商業	구미	14	철도	철도 경리사무의 조직과 운용
168	1926	土師盛貞	전라남도 경찰부장	1888	39	東京帝大 法學	구미	7	행정	
169	1926	井上清	함경남도 내무부장	1885	42	東京帝大 法學	구미	12	행정	
170	1926	林繁藏	재무국 사계과장	1887	40	京都帝大 法學	구미	11	행정	

171	1926	南宮營(조)	식산국 사무관	1887	40	東京帝大 法學	구미	10	행정	
172	1926	萩原彦三	문서과장	1890	37	東京帝大 法學	구미	10	행정	
173	1926	長谷川基	御用掛 陸軍大尉				구미	8	행정	
174	1926	田中武雄	경무국 보안과장	1891	36	明治大 法學	구미	10	행정	
175	1926	草場林五郎	검사	1873	54	東京帝大 法學	구미	10	사법	
176	1926	井上改平	평양공립농업 학교장				대만, 지나, 홍콩, 필리핀	2	교육	
177	1926	西尾紘平	충청북도 시학				대만, 지나, 홍콩, 필리핀	2	교육	
178	1926	土井喜市	강원도사범학 교장	1880	47	哲學館大	대만, 지나, 홍콩, 필리핀	2	교육	
179	1926	大山一夫	경성일출심상 소학교장	1869	58	東京青山師範	대만, 지나, 홍콩, 필리핀	2	교육	
180	1926	和田英正	해주고등보통 학교장	1880	47	廣島師範	대만, 지나, 홍콩, 필리핀	2	교육	
181	1926	吉田勘藏	충청남도 시학				대만, 지나, 홍콩, 필리핀	2	교육	
182	1926	高木善人	대구중학교장	1883	44	東京帝大 史學	대만, 지나, 홍콩, 필리핀	2	교육	
183	1926	福士德平	부산제2공립 상업학교장	1872	55	東京商業 商業教員養成所	대만, 지나, 홍콩, 필리핀	2	교육	
184	1926	遠藤德郎	군산심상고등 소학교장				대만, 지나, 홍콩, 필리핀	2	교육	
185	1926	圓城寺澤次郎	목포공립보통 학교장				대만, 지나, 홍콩, 필리핀	2	교육	
186	1926	崔哲岳(조)	연산공립보통 학교장				대만, 지나, 홍콩, 필리핀	2	교육	
187	1926	平岡一男	원산공립심상 고등소학교장				대만, 지나, 홍콩, 필리핀	2	교육	

188	1926	杉崎綱五郎	선천공립보통 학교장			대만, 지나, 홍콩, 필리핀	2	교육		
189	1926	赤木萬二郎	관립사범 학교장			대만, 지나, 홍콩, 필리핀	2	교육		
190	1926	平岡辰二	의원의관	1888	39	九州帝大 醫學	구미	15	의료	내과
191	1926	務川忠治	도립의관			九州帝大 醫學	구미		의료	
192	1926	周防正季	도립의관	1885	42	愛知醫學	구미	11	의료	위생학
193	1926	小島麟三	도립의관				구미		의료	산부인과
194	1926	高橋昇	권업모범장 기사	1892	35	東京帝大 農學	미국 독일	28	농림 수산	작물학
195	1926	山岸陸造	전매국 기사	1885	42	東京帝大 農藝化學	구미	12	전매	염전
196	1926	室田武隣	중앙시험소 기사				영국 프랑스		공업	섬유
197	1926	武居軍次郎	토목과 기사				구미		공업	
198	1926	本間德雄	토목과 기사	1889	38	東京帝大 土木	지나 미국		공업	
199	1926	近藤確郎	遞信吏員養成 所長	1886	41	遞信官吏練習 所	구미	10	체신	체신사업의 실제
200	1927	田中三雄	전매국 사무관				구미	6	전매	
201	1927	湯村辰二郎	충청북도 내무부장	1892	36	東京帝大 法學	구미	12	행정	
202	1927	安藤袈裟一	경기도 경찰부장	1881	47	京都帝大 法學	구미	10	행정	
203	1927	藤原喜藏	충독관방 비서과장	1888	40	東京帝大 法學	구미	11	행정	
204	1927	松井房治郎	경상남도 내무부장	1881	47	東京帝大 法學	구미	12	행정	
205	1927	喜頭兵一	관사	1884	44	東京帝大 法學	구미	10	사법	
206	1927	福島亦八	조선공립중 학교장	1871	57	京都帝大 哲學	대만, 지나, 홍콩, 필리핀	2	교육	
207	1927	中家壽太郎	조선공립사범 학교장	1886	42	廣島師範	대만, 지나, 홍콩, 필리핀	2	교육	
208	1927	風早實馬	조선공립고등 보통학교장				대만, 지나, 홍콩, 필리핀	2	교육	
209	1927	宇留島喜六	조선공립고등 여학교장	1883	45	廣島師範	대만, 지나, 홍콩, 필리핀	2	교육	

210	1927	諏訪原義衛	조선공립실업 학교장			東京教員養成所 대만, 지나, 홍콩, 필리핀	2	교육		
211	1927	奥田定一郎	경성공업 교수			대만, 지나, 홍콩, 필리핀	2	교육		
212	1927	高樹宇一	수원농림 교수			대만, 지나, 홍콩, 필리핀	2	교육		
213	1927	佐竹秀一	의원의관	1886	42	金澤醫學	구미		의료	안과
214	1927	大河内雪	도립의관	1882	46	愛知醫學	구미	15	의료	외과
215	1927	高田昇	도립의관	1892	36	東京帝大 醫學	구미		의료	외과
216	1927	西龜三圭	경무국 위생과 기사	1884	44	京都帝大 醫學	인도 구미		행정	
217	1927	小林晴治郎	경성의학 교수	1884	44	東京帝大 動物學	인도 캘커타	4	교육	국제회의 참석
218	1927	志賀潔	의원장	1870	58	東京帝大 醫學	上同	4	의료	국제회의 참석
219	1927	後藤眞咲	경성영림서 기사				구미	10	농림 수산	산림정책
220	1927	三須英雄	권업모범장 기사			東京帝大 農藝化學	구미		농림 수산	비료
221	1927	昆野恒太郎	혈청제조소 기사	1886	42	東京帝大 獸醫學	구미	12	농림 수산	가축전염병 예방·치료
222	1927	唐澤信一	전매국 기사	1885	43	東京高等農學 校	마닐라 인도 구미		전매	연초
223	1927	川澤章明	이리토목출장 소장	1892	36	東京帝大 土木	이집트 구미		공업	하천 치수
224	1927	横井増治	토목과 기사	1888	40	東京帝大 土木	구미		공업	
225	1927	中川銀三郎	체신국 기사				구미		체신	전기, 무선통신 기술
226	1927	飯倉文甫	체신국 공무과장	1884	44	東京帝大 電氣工學	구미	12	체신	위성된 무선통신회의 참석, 무선통신의 현황
227	1927	澤崎修	철도국 참사	1889	39	東京帝大 法學	인도 이집트 구미	15	철도	자동차 운송상황 및 교통기관의 복합화에 따른 교통정책
228	1928	西崎鶴司	경상남도 재무부장	1895	34	東京帝大 法學	구미	12	행정	
229	1928	古庄逸夫	평안남도 재무부장	1895	34	東京帝大 法學	구미	6	행정	

230	1928	竹内健郎	경상남도 내무부장	1888	41	東京帝大 法學	구미	12	행정	
231	1928	穂積眞六郎	재무국 세무과장	1889	40	東京帝大 法學	구미	12	행정	
232	1928	長尾戒三	경성지방법원 검사장	1873	56	東京帝大 法學	구미	10	사법	
233	1928	横山彌三	수송공립보통 학교장	1870	59	대만, 지나, 홍콩, 필리핀		2	교육	
234	1928	森武彦	청운공립보통 학교장	1887	42	愛知師範 대만, 지나, 홍콩, 필리핀		2	교육	
235	1928	鳥飼生駒	평양중학교장	1879	50	廣島師範 대만, 지나, 홍콩, 필리핀		2	교육	
236 ∞ 246	1928	横山彌三의 시찰기 등에 따르면 1928년 시찰단에는 교원 14명이 참여함. 나머지 11명의 명단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横山彌三 시찰기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인원에는 포함시킴.				대만, 지나, 홍콩, 필리핀		2	교육	
247	1928	中馬越之助	경성고등 경성사범 생도감	1883	46	육군사관학교	구미	7	교육	체육·교련교육, 교육시설 현황
248	1928	鹽見順介	도립원장			九州帝大 醫學	구미		의료	내과
249	1928	國峰專吉	경무국 위생과 기사, 조선약학교장	1884	45	東京帝大 藥學	인도		교육	약용식물
250	1928	黒田馨	체신국 인천해사출장 소장	1887	42	東京高等商船 學校	구미		체신	造船 사업
251	1929	甘蔗義邦	경무국 위생과장	1891	39	東京帝大 法學	구미	10	행정	
252	1929	佐伯顯	함경남도 경찰부장	1893	37	中央大 法學	구미	11	행정	사회제도, 경찰행정
253	1929	宮本元	판사	1889	41	東京帝大 法學	구미	10	사법	
254	1929	向井最一	인천공립상업 학교장			대만, 지나, 홍콩, 필리핀		2	교육	
255	1929	石原清熙	경성서대문공 립심상고등소 학교장	1881	49	熊本縣師範 대만, 지나, 홍콩, 필리핀		2	교육	
256	1929	有村清太郎	청주공립보통 학교장			대만, 지나, 홍콩, 필리핀		2	교육	

257	1929	江頭六郎	공주고등보통 학교장	1887	43	東京師範 대만, 지나, 홍콩, 필리핀	2	교육		
258	1929	時技清松	송정공립심상 고등소학교장			대만, 지나, 홍콩, 필리핀	2	교육		
259	1929	林田格太郎	고창공립보통 학교장			대만, 지나, 홍콩, 필리핀	2	교육		
260	1929	近澤正雄	대구봉산정심 상고등소학교 훈도			대만, 지나, 홍콩, 필리핀	2	교육		
261	1929	中村晴次郎	부산제5심상 소학교장			대만, 지나, 홍콩, 필리핀	2	교육		
262	1929	林孝輔	재령공립보통 학교장	1903	27	福井縣師範 대만, 지나, 홍콩, 필리핀	2	교육		
263	1929	西田榮三郎	평남공립사범 학교 교유			대만, 지나, 홍콩, 필리핀	2	교육		
264	1929	小川太喜治	정주공립보통 학교장			대만, 지나, 홍콩, 필리핀	2	교육		
265	1929	三輪辰次郎	춘천공립보통 학교장			대만, 지나, 홍콩, 필리핀	2	교육		
266	1929	李翊華(조)	함흥여자보통 학교장			대만, 지나, 홍콩, 필리핀	2	교육		
267	1929	森新助	간도중학교장			鹿兒島縣師範 대만, 지나, 홍콩, 필리핀	2	교육		
268	1929	後藤逸次	경성농업학교 교유			대만, 지나, 홍콩, 필리핀	2	교육		
269	1929	福士末之助	시학관			東京師範	구미	13	교육	체육·교련교육, 교육시설 현황
270	1929	村田美喜雄	도립원장	1890	40	京都帝大 醫學	구미		의료	
271	1929	西川久	수원잠업시험 소 기사	1889	41	東京帝大 農學	이태리 프랑스	12	농림 수산	잠업 및 蠶病
272	1929	伊森賢三	전매국 개성출장소장	1879	51	東京帝大 農學	남지나 구미	9	전매	인삼사업

273	1929	待山義雄	사리원토목출장소장	1890	40	東京帝大 土木	구미	8	공업	토목사업
274	1929	川崎繁太郎	광무과 기사	1878	52	東京帝大 地質科	남아프구미		공업	광업 현황, 채굴 기술
275	1929	平尾壬午郎	체신국 감리과장				구미	11	체신	만국우편연합회의 참석, 체신사업 현황
276	1930	澤慶治郎	산림부 林務과장	1892	39	東京帝大 法學	구미	6	행정	
277	1930	上瀧基	광무과장	1894	37	東京帝大 法學	구미 남미	7	행정	
278	1930	水野重功	검사	1885	46	東京帝大 法學	구미	11	사법	
279	1930	福士德平	시학관	1872	59	東京商業 商業教員 養成所	구미		교육	
280	1930	橋本左太郎	개간과장	1878	53	東京帝大 農學	인도 이집트 구미	13	행정	
281	1930	山形靜智	경성고등 교수	1890	41	京都工藝	구주	6	교육	建築史, 건축장식
282	1930	車田篤	경성법학 교수	1889	42	東京帝大 政治	구주	6	교육	행정법, 국제공법
283	1930	横山富吉	경성상업 교수	1881		존스홉킨스 (Johns Hopkins)대 박사	구주	6	교육	
284	1930	葛野淺太郎	경성농림 교수				구주	6	교육	축산
285	1931	新貝肇	체신국 경리과장	1896	36	東京帝大 法學	구미	9	체신	체신사업 현황
286	1931	山澤和三郎	전매국 제조과장	1895	37	東京帝大 法學	구미	11	전매	
287	1931	景山宜景	경기도 재무부장	1898	34	東京帝大 法學	구미	9	행정	
288	1931	伊達四雄	경상북도 내무부장	1886	46	東京帝大 法學	구미	8	행정	
289	1931	美座流石	평안남도 내무부장	1891	41	東京帝大 法學	구미	8	행정	
290	1931	松井虎雄	도립원장	1887	45	千葉醫學	구미		의료	비뇨기과
291	1931	内田鯤五郎	식산국 연료선광 연구소 기사	1888	44	東京帝大 冶金	인도 차이나 남양	10	공업	인도지나 및 남양 방면에 있는 철·무연탄광
292	1932	白石光治郎	평안북도 경찰부장	1897	36	東京帝大 法學	구미		행정	

293	1932	瀬戸道一	강원도 재무부장			東京帝大 法學	구미	7	행정	
294	1932	山縣三郎	전라남도 내무부장	1891	42	京都帝大 法學	구미	2	행정	양행 중에 전근 사령을 접하고 증도에 귀임
295	1932	玉名友彦	검사	1888	45	東京帝大 法學	구미	10	사법	공산주의 운동 실태, 통제책
296	1932	加藤正擴	수리과 기사	1887	46	東京帝大 農學	인도 이집트 구미	10	공업	
297	1932	森義信	체신국 서무과장	1899	34	東京帝大 法學	구미	6	체신	
298	1933	西本計三	전매국 사업과장	1896	38	東京帝大 法學	구미	9	전매	
299	1933	兒島高信	전라남도 내무부장	1896	38	東京帝大 法學	구미	4	행정	
300	1933	渡邊純	관사	1888	46	京都帝大 法學	구미	11	사법	
301	1933	福田甚二郎	검사	1886	50	東京帝大 法學	구미	11	사법	
302	1933	木村織之助	도립의원장	1877	57	千葉醫學	영국 프랑스 독일	11	의료	외과
303	1933	植木秀幹	수원농림 교수	1882	52	東京帝大 林學實科	캐나다	3	교육	국제회의 참석
304	1933	高松順茂	체신국 해사과장	1901	33	東京帝大 法學	구미	12	체신	海事航空事務
305	1934	下村進	경무국 도서과장	1898	36	東京帝大 法學	구미	10	행정	
306	1934	阿部明治太郎	전라북도 내무부장	1893	42	京都帝大 法學	구미		행정	
307	1934	金時權(조)	경상북도 산업부장	1884	51	官立平壤日語 學校	구미	3	행정	병환으로 조기 귀임
308	1934	村山道雄	경성세무감독 국 경리부장	1898	37	東京帝大 法學	구미	8	행정	
309	1934	稻垣茂一	학무국 편집과장	1882	53	東京師範	구미	8	교육	
310	1934	油井岱治	종마목장 기사	1888	47	東京帝大 獸醫學	호주 뉴질	4	농림 수산	축산(면양 구입 및 사육 시찰 조사)
311	1934	山本尋己	농림국 기사	1888	47	東京帝大 農學	구미	10	농림 수산	농업정책 동향
312	1935	石田千太郎	식산국 광산과 사무관	1894	42	遞信官吏 養成所	구미	8	행정	
313	1935	森久彌一郎	도립의원장	1891	45	九州帝大 醫學	구미		의료	내과(신장)
314	1935	井芹正	신의주영립 서장	1890	46	東京帝大 林學	구미	7	농림 수산	삼림사업 현황

315	1936	關口聰	경성전매지국장	1896	41	東京帝大 法科	구미	5	전매	
316	1936	水田直昌	사계과장	1897	40	東京帝大 法學	구미	6	행정	
317	1936	池清	체신국 보험운용과장	1895	42	遞信官吏 練習所	구미	7	체신	
318	1936	田中靜夫	체신국 보험감리과장	1899	38	東京帝大 法學	구미	6	체신	
319	1937	信原聖	전매국 사업과장	1900	38	東京帝大 法學	구미	6	전매	
320	1937	岩男省三	체신국 감리과장	1901	37	東京帝大 法學	카이로	7	체신	국제 전신 전화 및 무선전신 회의 참석
321	1939	木下麟太郎	전매국 서무과장	1903	37	東京帝大 法學	이집트 구미	5	전매	엽연초 수출 증진 방안, 신관로 조사

※ 출전 : 『朝鮮總督府官報』,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日本官報』, 日本國立公文書館所藏 『任免裁可書』,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所藏 『帝國官吏出張及巡廻雜件』

『京城市民名鑑』, 『大衆人事錄』第14版, 『事業と郷人』第一輯, 『倭政時代人物史料』, 『朝鮮と三州人』, 『朝鮮功勞者名鑑』, 『朝鮮紳士寶鑑』, 『朝鮮人事興信錄』, 『朝鮮總督府始政二十五周年記念表彰者名鑑』

『京城高等工業學校一覽』, 各年版, 『京城高等商業學校一覽』, 各年版, 『京城法學專門學校一覽』, 各年版, 『京城醫學專門學校一覽』, 各年版, 『京城帝國大學一覽』, 各年版, 『水原高等農林學校一覽』, 各年版, 『東京帝國大學卒業生氏名錄』, 『日本医籍錄』

『京城日報』, 『東亞日報』, 『每日申報』, 『釜山日報』, 『朝鮮新聞』, 『中外日報』

『文教의朝鮮』, 『朝鮮公論』, 『朝鮮及滿洲』, 『(朝鮮)司法協會雜誌』, 『朝鮮鐵道協會會誌』, 『治刑』

歷代知事編纂會 編, 1991 『新編日本の歷代知事』, 歷代知事編纂會

歷代知事編纂會 編, 1983 『日本の歷代市長』, 第1卷, 歷代知事編纂會

戰前期官僚制研究會 編, 1981 『戰前期日本官僚制の制度・組織・人事』, 東京大學出版會.

秦郁彦 編, 2001 『日本官僚制總合事典: 1868-2000』, 東京大學出版會.

※ 비고 : 출장 피명된 순서대로 수록함. 성명 옆의 '(조)'는 조선인을 의미함.

출장지 및 시찰(연구)내용은 『朝鮮總督府官報』, 『任免裁可書』 등과 같은 공식기록에 기재된 내용을 원칙으로 삼아, 신문·잡지의 내용을 참고함.

일반행정 분야를 전반적으로 시찰하기 위해 파견된 경우 '행정'이라 표기함.

지역 및 관청·학교명은 다음과 같이 줄여 표기함.

구미각국 및 유럽 각국을 길게 나열한 경우 → 구미, 구주각국 → 구주, 남북아메리카 →

미주, 뉴질랜드 → 뉴질, 아일랜드 → 아일랜드, 아프리카 → 아프, 영국령 해협식민지 → 해협

자혜의원 → 자혜, 조선도립의원 → 도립, 조선총독부의원 → 의원

경성고등상업학교 → 경성상업, 경성고등공업학교 → 경성공업, 경성법학전문학교 → 경

성법학, 경성의학전문학교 → 경성의학, 경성전수학교 → 경성전수, 수원고등농림학교 →

수원농림, 조선약학전문학교 → 조선약학

京都高等工藝學校 → 京都工藝, 廣島高等師範學校 → 廣島師範, 金澤醫學專門學校 → 金

澤醫學, 大阪工業學校 → 大阪工業, 東京高等工業學校 → 東京工業, 東京高等師範學校 →

東京師範, 東京高等商業學校 → 東京商業, 鹿兒島縣尋常師範學校 → 鹿兒島縣師範, 愛知縣立

醫學專門學校 → 愛知醫學, 長崎醫學專門學校 → 長崎醫學, 千葉醫學專門學校 → 千葉醫學

〈Abstract〉

The Business Travel System of Chosen Government General Covering Europe, America and Their Colonies

CHOI, Hyunwoo *

The Chosen Government General[朝鮮總督府] dispatched 321 officials to Europe & America from 1910 to 1939 on a business travel. High-ranking officials were mainly dispatched to the U.K., France, Germany, and the U.S. including their colonies. The business travel to Europe & America was a shortcut to success of officials. Only three Korean officials at the Chosen Government General were dispatched to the Europe & America. The first business travel to Europe & America by Korean officials in the 1920s was part of measures to appease Korean officials dissatisfied with discriminatory treatment and induce their loyalty.

The business travels to Europe & America, which began in 1910, surged between 1912 and 1913, but plunged due to the outbreak of World War I. However, the number of business travels to Europe & America increased rapidly, reaching an average of 22 per year in the 1920s. The business travel to Europe & America was so expensive, but the Chosen Government General gave officials more chance to overseas business travel in the 1920s. Saito makoto[齋藤實] who took a governor[總督] of Chosen shortly after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3·1 運動], sent many officials to Europe & America in the process of seeking effective governing method and calming down the worsening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Due to the Great Depression in 1929 and the expansion of the 1930s wartime system, the number of business travels to Europe & America plunged to an average of five per year in the 1930s and 1939 was the last dispatch.

In this paper, the field of business travel officials was divided into general administration[一般行政], jurisdiction[司法], education[教育], medical treatment[醫療],

* Doctoral course, Department of Histor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agriculture forestry & fisheries[農林水産], monopoly[專賣], industry[工業], railway[鐵道], communications & postal services[遞信] based on the purpose of business travel and continuity of work after officials returning to Chosen. General administration and education officials accounted for half of all Europe & America business travelers. The average length of business travel was 10 months. Traveling in the medical and industrial fields for the purpose of acquiring professional skills was longer than other fields.

Most of the general administrative officials' business travels were made to broaden their knowledge without clear purpose. In other areas, however, dispatch of business travel to Europe & America was done to develop solutions to the problems faced by the Chosen Government General or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of officials.

This study failed to specifically analyze the contents of the surveys conducted by the officials as well as the effect it had on Chosen. These limitations will be supplemented in each field through additional research in the future. In addition, a study that Comprehensive analysis on Chosen Government General policy of survey of Europe & America by connecting the business travel system with overseas researcher system[在外研究員制度] is left as a future task.

Key Words : Chosen Government General, governing system, japanese colonial rule, officials training, overseas business travel, overseas survey